

制海權의 觀點에서 본 李舜臣의 海洋戰略



海 軍 大 學

教授 金 鍾 基 *

目 次

I. 序 論

II. 制海權의 確保, 維持 및 行使

1. 制海權의 概念
2. 制海權의 確保 및 維持
3. 制海權의 行使

III. 壬辰-丙申年 海戰

1. 概 要
2. 初期 朝鮮 水軍의 狀況
3. 壬辰年 海戰
4. 癸巳-丙申年 海戰

IV. 丁酉-戊戌年 海戰

1. 概 要
2. 李舜臣의 下獄과 漆川梁 海戰
3. 鳴梁海戰
4. 露梁海戰

V. 結 論

※ 參考文獻

I. 序 論

그동안 壬辰倭亂에 관한 研究 특히 忠武公 李舜臣의 海戰史에 관한 研究가 활발하게 進行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李舜臣의 戰略·戰術에 관한 研究가 활발하게 進行되었는데, 李舜臣이 수행한 海戰과 戰略·戰術에 관한 종합적인 研究 그

* 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 해양전략/정책연구실장겸 해양전략 교수(現)

리고 각각의 海戰, 例를 들면 閑山島海戰, 釜山浦海戰 또는 鳴梁海戰 등에 관한 研究도 많이 발표되었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內容도 많이 있다. 例를 들면, 壬辰倭亂時에 거북선이 최초로 사용된 海戰은 어느 海戰인가? 鳴梁海戰 때 李舜臣 예하의 戰船(板屋船)은 과연 몇 隻이었는가? 아직도 규명해야 할 研究의 對象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研究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海戰은 制海權과 不可分의 關係가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海戰이든 制海權의 確保 維持 및 行使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壬辰倭亂時에 수행된 여러 海戰이 制海權의 觀點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또 戰局에 어떠한 影響을 주었는가 그리고 李舜臣이 制海權에 관하여 어떠한 戰略的 思考를 가지고 海戰을 수행하였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당시 海戰의 重要性을 이해하고 李舜臣의 海洋戰略 思想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意義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本 研究는 壬辰倭亂時에 수행된 海戰을 制海權의 觀點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고찰하고, 制海權에 관한 李舜臣의 戰略思想을 분석하는 데 目的을 두고 있다. 制海權이란 비교적 現代的 概念이다. 따라서 壬辰倭亂時에 수행된 海戰과 당시 李舜臣의 戰略思想을 現代的 觀點에서 재조명하고 평가하는 것이 本 研究의 目的이다.

本 研究는 壬辰倭亂時에 수행된 주요 海戰이 制海權의 確保, 維持 및 行使 측면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고찰하고 制海權에 관하여 李舜臣이 가졌던 戰略

1) 壬辰倭亂과 李舜臣에 관한 종합적인 研究로서는 李焜錫, 『壬辰戰亂史』(서울: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67), 趙成都, 『忠武公 李舜臣』(서울: 南榮文化社, 1982), 崔碩南, 『救國의 名將 李舜臣』(서울: 敎學社, 1992) 등이 있으며, 주요 海戰에 관한 研究로서는 海軍軍史研究室 編,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海軍軍史研究室, 1993)에 수록된 鄭鎭述, “閑山島海戰 研究”, 金鍾基, “釜山浦海戰”, 金一相, “鳴梁海戰의 戰術의 고찰” 등의 論文이 있다.

的 思考를 분석하는 데 焦點을 두고 있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海戰의 背景, 經過, 結果 또는 勝敗 要因을 분석하는 데 重點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研究의 順序는 壬辰倭亂時 戰略을 분석하기에 앞서 制海權에 관한 일반적인 理論을 먼저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制海權에 관한 理論을 바탕으로 壬辰倭亂時에 수행된 海戰을 倭軍의 第1次 侵攻時(壬辰-丙申年)에 수행된 海戰과 第2次 侵攻인 丁酉再亂時(丁酉-戊戌年)에 수행된 海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本 研究는 李舜臣의 『狀啓草本』과 『亂中日記』 그리고 『宣祖實錄』 등의 당시 文獻을 중심으로 海戰을 분석하였다.

Ⅱ. 制海權의 確保, 維持 및 行使

1. 制海權의 概念

海洋을 使用(use)하고 統制(control)한다는 概念은 海洋戰略(maritime strategy)과 海軍戰略(naval strategy)에서 가장 중요한 概念임에도 오늘날 다소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²⁾ 海洋을 使用하고 統制하는 能力 또는 狀態를 의미하는 用語는 時代와 武器體系의 變化 그리고 각 使用者의 타당한 主張에 따라 여러 가지가 사용되어 왔다. 흔히 사용되어 온 用語는 制海權(command of the sea), 海洋統制權(control of the sea) 또는 海洋統制(sea control)와 海洋拒否(sea denial)라는 用語들이다.³⁾ 이 가운데 制海權과 海洋統制權이라는 用語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海洋戰略과 海軍戰略의 概念과 이 두 用語의 相關關係에 대해서는 金鍾基, 『海洋戰略 概論』(해군본부, 1994), pp. 38~42 참조.

3) 위의 책, p. 43.

그런데 「制海權이란 실제적인 海洋統制權을 의미하기 때문에」⁴⁾, 앞으로 本稿에서는 制海權과 海洋統制權이란 두 用語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한다. 制海權이란 보다 강화된 海洋統制權이란 概念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制海權의 確保 및 維持方法 그리고 制海權의 行使方法은 海洋統制權의 方法과 같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코르벳트卿(Sir Julian S. Corbett)은 「海軍戰(naval warfare)⁵⁾의 目標은 항상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制海權을 확보하거나 敵의 制海權 確保를 방지하는 데 있어야 한다.」⁶⁾고 하면서, 「制海權이란 商業的 또는 軍事的 目的이든 간에 海洋交通路의 統制(control of maritime communications)를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海軍戰의 目標은 海洋交通路의 統制에 있다.」⁷⁾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海軍戰과 制海權 그리고 海洋交通路는 不可分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코르벳트는 制海權이란 戰時에만 존재하며, 絶對的인 概念이 아니라는 것도 지적하였다. 「制海權은 戰爭狀態에서만 존재한다. 우리가 平時에 制海權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할 경우, 이는 修辭的인 표현으로 우리가 적절한 海軍位置(naval positions)를 확보하고 있고, 戰爭이 발발하였을 때 制海權을 획득할 수 있는 적절한 艦隊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⁸⁾ 그리고 「制海權은 敵이 절대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戰爭目

4) B. Mitchell Simpson III, "Editor's Introduction" Herbert Rosinski, *The Development of Naval Thought*(Newport : Naval War College Press, 1977), p. xix.

5) 海軍戰이란 艦隊 對 艦隊 戰鬪(海戰)를 비롯하여 艦隊 對 陸地 戰鬪와 艦隊 對 商船 戰鬪를 포함한 海軍部隊의 제반 行動을 의미한다. 상세한 것은 金鍾基, 앞의 책, p. 41 참조.

6) Julian S. Corbett,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Annapolis : Naval Institute Press, 1988), p. 91.

7) 위의 책, p. 94.

8) 위의 책, p. 337.

標의 達成을 추구하고 우리의 意志를 敵에게 강요할 때 敵이 우리의 任務遂行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⁹⁾

한편 브로디(Bernard Brodie) 博士는 制海權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制海權이란 다만 交戰中인 한 國家가 어떤 특정한 海域에서 海上交通을 통제하기 위하여 경주한 努力이 전체적으로 成功을 거두었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制海權은 自國이 海洋을 사용한다는 적극적인 利點과 敵으로 하여금 海洋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소극적인 利點을 가지고 있다.」¹⁰⁾

요약하면, 制海權 또는 海洋統制權이란 交戰中인 한 國家가 海洋을 사용하는 현저한 力量을 획득한 것을 말한다. 특히 制海權은 自國의 海上交通을 방어하는 能力과 戰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敵國의 海上交通 使用을 거부하는 能力을 포함한다.¹¹⁾ 즉, 交戰中인 한 國家가 海洋使用에 있어서 우세한 立場에 도달하였을 때, 특히 自國의 目的을 위하여 海洋을 사용하고 敵國의 海洋使用을 거부할 수 있을 때, 그 國家는 制海權을 획득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海洋統制權에는 時間과 空間的으로 5가지 形態가 있다.

○ 絶對的 統制(absolute control) 또는 制海權 : 妨害를 전혀 받지 않고 작전할 수 있는 自由가 보장된 狀態이다. 敵은 作戰이 전혀 불가능하다.

○ 實質的 統制(working control) : 고도의 自由가 보장된 가운데 作戰이 가능한 일반적인 能力을 가진 狀態이다. 敵은 큰 危險을 안고서만 作戰이 가능하다.

○ 紛爭的 統制(control in dispute) : 兩側이 어느 정도 危險을 안고 作戰이 가능한 狀態이다.

9) 위의 책, p. 338.

10) Bernard Brodie, *A Guide to Naval Strategy*(Westport : Greenwood Press, 1977), pp. 74~75.

11) E. B. Potter, and Chester W. Nimitz(eds), *Sea Power*(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60), p. 19.

○ 敵의 實質的 統制(enemy working control) : 實質的 統制的 反對 狀況이다.

○ 敵의 絶對的 統制(enemy absolute control) : 絶對的 統制的 反對 狀況이다.¹²⁾

2. 制海權의 確保 및 維持

戰時에 海洋은 制海되어(commanded) 있는 것이 아니라 紛爭中(in despute)에 있다고 보는 것이 常例일 것이다. 그리하여 海軍 攻勢(naval offensive)의 첫 目標은 아주 중요한 海域에 대하여 制海權을 확보하는 데 있다.¹³⁾ 대체적으로 海洋戰略家들의 見解에 따르면, 制海權/海洋統制權 競爭이 海洋戰略의 직접적인 목적이 되고 있다.¹⁴⁾ 制海權의 確保 및 維持는 이를 방해하는 敵의 海軍力을 격파하거나 무력화함으로써 달성된다. 전통적으로 制海權을 확보하거나 유지하는 方法으로 決戰, 現存艦隊 및 艦隊封鎖라는 戰略이 취해진다.¹⁵⁾

決戰(decisive battle)이란 敵의 艦隊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규모에 관계 없이 항상 威脅이 되므로 가용한 勢力을 집중하여 敵을 격파(destroying)한다는 概念이다.¹⁶⁾ 일반적으로 決戰은 우세한 艦隊가 열세한 艦隊에 대하여 사용하는 가장 직접적이며 신속한 方法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決戰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勢力의 集中과 뛰어난 戰鬪技倆 그리고 왕성한 攻擊精神 등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決戰은 戰略的으로나 戰術的으로 攻勢的이라고 말할 수 있다.

12) Simpson III, 앞의 글, p. xix~xx.

13) Brodie, 앞의 책, p. 75.

14) Geoffrey Till, *Maritime Strategy and the Nuclear Age*(New York : St. Martin's Press, 1982), pp. 14~15.

15) Till, *Modern Sea Power*(London : Brassey's, 1987), pp. 6~8.

16) 金鍾基, 앞의 책, p. 48.

왕성하게 決戰을 추구했던 海軍은 넬슨(Horatio Nelson) 提督으로 대표되는 英國 海軍이었다. 帆船時代의 英國 海軍과 프랑스(또는 스페인) 海軍이 싸웠던 海戰을 분석해 보면, 대개의 경우에 英國 艦隊가 風上側에 위치하였고, 프랑스 艦隊가 風下側에 위치해 있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帆船의 특성상 風上側이 攻擊의 選擇權을 가졌으며, 風下側은 戰鬥離脫이 용이하였다. 이는 英國 艦隊가 왕성한 攻擊精神을 가졌던 것에 비하여, 프랑스 艦隊가 戰鬥을 기피하는 性向을 가졌기 때문이다. 海上에서 敵의 艦隊를 격파하는 決戰思想에 투철한 英國 海軍이 결국 19世紀 初에 世界의 海洋을 제패하게 되었던 것이다.

歴史的으로 유명한 決戰으로는 살라미스海戰(Battle of Salamis, 480 BC.), 레판토海戰(Battle of Lepanto, 1571), 트라팔가르海戰(Battle of Trafalgar, 1805) 및 對馬海戰(Battle of Tsushima, 1905)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海戰들은 상대방의 艦隊를 결정적으로 패배시켰을 뿐만 아니라 戰爭에 결정적인 影響을 주었던 決戰들이었다.

그러나 歴史的으로 決戰을 시도했던 경우는 많았으나, 決戰 그 자체는 稀少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戰鬥을 할 경우에 패배할 것으로 예상되는 열세한 艦隊는 당연히 決戰을 회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 한번의 決戰보다는 일련의 海戰을 통해서 누적적으로 戰果를 확대하여 制海權을 확보해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太平洋 戰爭時에 眞珠灣奇襲(1941. 12. 7)은 日本 海軍이 決戰을 추구했던 例가 될 것이다. 그러나 美國 海軍은 日本 海軍의 왕성한 挑戰을 극복하고 일련의 航空母艦 海戰을 통해서 戰爭 後期에 이르러 광대한 太平洋 海域의 制海權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갔던 것이다.

상대적으로 열세한 艦隊가 상투적으로 취해 왔던 최선의 方法이 現存艦隊 戰略이다. 現存艦隊(fleet-in-being)란 상대적으로 열세한 艦隊가 決戰을 회피하

고 勢力을 보존함으로써 敵의 戰鬥 또는 攻擊 意志를 발동할 수 없게 견제 (diverting)한다는 概念을 말한다.¹⁷⁾

現存艦隊 戰略은 다음과 같은 事由에서 비롯되었다. 비치헤드海戰(Battle of Beach Head, 1690. 7. 10)에서 英國의 허버트(Arthur Herbert) 提督이 지휘하는 英國-네덜란드 聯合艦隊가 뜨르빌(Anne Hilarion Tourville) 提督이 지휘하는 강력한 프랑스 艦隊와 遭遇戰을 벌였다. 이 海戰에서 英國의 主將 허버트가 지휘하는 中衛隊가 戰鬥을 기피함에 따라 英國-네덜란드 聯合艦隊가 패전하였다.

軍法에 회부된 허버트는 敗戰의 責任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우리 艦隊가 존재하는 한 敵은 어떠한 攻擊도 감히 기도하지 못할 것이다.(Whilst we had a fleet in being they would not dare to make an attempt.)」 그는 海戰에 앞서(6月 29日) 「우리 艦隊가 프랑스 艦隊를 감시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막대한 損失을 각오하지 않는 한 海上이나 陸地에 대하여 어떠한 行動도 감히 기도하지 못할 것이다.」¹⁸⁾라는 書信을 朝廷에 보내어 이미 交戰 回避의 뜻을 밝혔던 것이다. 결국 그의 主張이 인정되어 허버트는 無罪가 되었다.

이러한 허버트의 主張이 現存艦隊 戰略으로 일반화되었다. 現存艦隊 戰略은 敵의 通商 또는 沿岸을 공격하거나 敵의 主力에서 이탈한 小部隊를 공격함으로써 누진적으로 敵을 약화시켜 制海權을 확보하려는 戰略이다. 이 戰略은 本質적으로 守勢이나 戰術적으로는 攻勢이다.

現存艦隊 戰略의 대표적인 例는 第1次 世界大戰時에 獨逸 海軍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英國 艦隊에 비하여 열세한 獨逸 艦隊는 現存艦隊 戰略을 채택하고 英國 海岸에 대한 襲擊을 가하면서 英國 艦隊의 主力에서 분리된 小部隊를 공격

17) 위의 책, pp. 49~50.

18) P. H. Colomb, *Naval Warfare* vol. I(Annapolis : Naval Institute Press, 1990), p. 154.

함으로써 英國 艦隊의 勢力을 누진적으로 약화시키고자 기도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나타난 海戰이 도가뱅크海戰(Battle of Dogger Bank, 1915. 1. 24)과 저틀란드海戰(Battle of Jutland, 1916. 5. 31)이었다. 결국 獨逸 艦隊는 英國 艦隊를 견제하는 役割만 어느 정도 달성하였을 뿐, 英國 艦隊를 누진적으로 약화시키고자 했던 원래의 企圖를 달성하지 못했다.

艦隊封鎖(fleet blockade)는 決戰을 회피하고 現存艦隊 戰略을 채택하는 敵의 艦隊를 無力化시키기 위하여 港灣內에 封鎖(Containing)하는 戰略을 말한다.¹⁹⁾ 敵이 無力化되다면 封鎖側 海軍은 封鎖線 背後에서 制海權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封鎖에 참가하지 않은 勢力은 制海權을 行使할 수 있다. 艦隊封鎖는 敵에게 주는 心理的 效果와 敵 勢力의 集中을 방지하는 戰略的 利點이 있다. 그러나 艦隊封鎖는 封鎖側 艦隊의 과도한 努力의 消耗과 敵의 沿岸防禦 勢力에 의한 反擊의 危險이 따른다. 그러므로 艦隊封鎖는 戰略적으로 攻勢이나, 戰術적으로는 守勢라고 말할 수 있다.

艦隊封鎖의 例를 英國과 프랑스 戰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 王位 繼承戰爭(1738~1748)에서 英國 海軍은 英國의 貿易을 보호하고 侵攻에 대비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주요 港口를 봉쇄하였다. 프랑스 港口에 대한 英國 海軍의 封鎖作戰은 7年戰爭(1756~1763)에서 절정을 이루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프랑스 艦隊의 海洋進出이 차단되었고 프랑스의 貿易이 침체에 빠졌던 것이다.

상대방의 艦隊封鎖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하는 戰略으로는 18~19世紀에 西洋의 여러 國家 海軍에서 사용했던 要塞艦隊(fortress fleet) 戰略이 있다. 要塞艦隊 戰略이란 러시아에서 발상된 要塞至上의 大陸의 思想이다.²⁰⁾ 要塞艦隊 戰略은 敵의 海上攻擊으로부터 要塞를 보호하기 위하여 艦隊가 海上決戰을 회피하고 要塞의 庇護 아래 있다가 유리한 時期에 敵 艦隊를 격파한다는 概念이다. 따라서 要塞艦隊 戰略은 戰略적으로나 戰術적으로 모두 守勢의 戰略이다.

19) 金鍾基, 앞의 책, p. 50.

20) A. T. Mahan, *Naval strategy*(Westport : Greenwood Press, 1975), p. 385.

戰例를 통해서 볼 때, 要塞艦隊의 敗北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淸日戰爭時 威海衛 封鎖戰(1895. 2)에서는 淸 艦隊, 美西戰爭時 산티아고海戰(Battle of Santiago, 1898. 4~7)에서는 스페인 艦隊 그리고 露日戰爭時 旅順港 封鎖戰(1904. 2~12)에서는 러시아 艦隊가 要塞艦隊 戰略을 채택하였다. 이들 戰例의 경우, 陸上으로부터 背後攻擊이 要塞艦隊를 결정적으로 패배시키는 役割을 하였던 것이다. 즉, 攻勢側 艦隊가 要塞의 庇護 아래 있는 艦隊를 外海로 끌어내어 海上決戰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要塞 背後에 대한 陸上攻擊 또는 上陸作戰을 통한 合同作戰이 수반되어야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3. 制海權의 行使

브로디는 「制海權을 확보(acquiring)하는 것과 制海權을 行使(exercising)하는 것을 식별해 두는 것이 유용하다.²¹⁾」고 말하였다. 國家가 戰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制海權의 確保는 海軍의 중요한 目標가 되지만, 制海權은 自國의 海洋使用을 계속 보장하고 敵國의 海洋使用을 거부하기 위하여 확보할 價値가 있는 것이다. 制海權을 행사한다는 것은 自國의 目的을 위하여 海洋을 사용하는 단계를 말한다.

制海權은 다음과 같은 4가지 種類의 海軍作戰 즉, 軍事力 投射, 侵攻에 대한 防禦, 海上交通路에 대한 攻擊 및 海上交通路의 防護를 위하여 행사된다. 다시 말하면 制海權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상 4가지 海軍作戰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危險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軍事力 投射(power projection)는 敵國의 領土에 대한 艦砲射擊으로부터 上陸作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對上陸作戰을 말한다.²²⁾ 韓國戰爭時에 制海權을 장악한 韓國 海軍과 유엔 海軍이 北韓軍 地域에 대하여 실시한 艦砲攻擊과 航空

21) Brodie, 앞의 책, p. 75.

22) 金鍾基, 앞의 책, p. 51.

母艦 機動部隊의 戰術航空 攻擊 그리고 仁川上陸作戰 등은 대표적인 軍事力 投射에 속한다고 보겠다.

侵攻에 대한 防禦는 敵의 軍事力 投射에 대한 自國의 沿岸防禦를 의미한다.²³⁾ 制海權을 확보하고 있는 國家는 자국의 領土를 방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막강한 地上軍을 가지고 英國을 침공하려고 기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英國 艦隊가 英國海峽의 制海權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海上交通路에 대한 攻擊은 通商破壞와 商業封鎖를 통하여 敵國의 戰爭遂行 能力을 박탈하려는 努力을 말한다.²⁴⁾ 敵國의 海上交通路에 대한 攻擊은 兩次 世界大戰時에 聯合國 海運에 대한 獨逸의 U-보트 攻擊과 太平洋戰爭時에 美國 海軍의 對日本 通商破壞戰이 좋은 例가 될 것이다. 물론 制海權을 장악하지 못한 海軍은 潛水艦과 같은 은밀한 武器로 敵國의 海上交通路를 파괴할 수 있지만, 制海權을 장악한 海軍은 敵國의 海上交通路에 대하여 水上, 水中 및 空中으로부터 치명적인 攻擊을 가할 수 있다.

海上交通路의 防護는 自國의 海運과 通商을 방호함으로써 戰爭遂行 能力을 유지하려는 努力을 말한다.²⁵⁾ 韓國戰爭時에 유엔 海軍이 韓國 周邊海域에 대한 制海權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海上交通路의 安全이 보장되었고, 유엔軍은 兵力과 軍需物資를 신속히 韓國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

여기서 海戰과 制海權 그리고 戰爭의 相關關係가 극명하게 나타난 戰例를 하나 제시하고자 한다. 紀元前 480년에 페르시아의 王 크세룩세스(Xerxes)는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하여 180,000名의 地上軍과 함께 數百隻의 輸送船을 동원하여 에게海 沿岸을 따라 水陸竝進케 하였다. 이 때 1,300隻의 페르시아 戰鬪艦隊가 地上軍의 側方을 幷護하고 輸送船團을 방호하였다. 아테네를 비롯하여 여러 都市가

23) 위의 책.

24) 위의 책.

25) 위의 책.

페르시아軍에게 점령당하고 그리스 南部의 都市마저 위협을 받고 있었을 때, 그리스의 聯合艦隊가 살라미스海戰에서 페르시아의 主力艦隊를 대파하였다. 페르시아 艦隊가 패전함으로써 制海權을 상실하자 크세록세스는 海上交通路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과 이로 말미암아 地上軍이 더 진격할 수 없음은 물론 자신의 退路마저 위협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遠征을 중단하고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살라미스海戰은 「交通線은 戰爭을 지배한다」²⁶⁾는 마한의 金言을 입증하였으며, 制海權을 경쟁하는 海戰의 勝敗가 戰爭의 勝敗를 결정했던 대표적인 海戰이었던 것이다.

Ⅲ. 壬辰-丙申年 海戰

1. 概要

장기간 지속된 內亂을 종식시키고 日本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朝鮮과 明을 침략하려는 計劃을 구상하였다. 1591年 1월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諸侯들에게 船舶建造를 지시하였고, 8월에는 나고야(名護屋)에 本營을 설치하고 侵攻準備를 독려하였으며, 급기야 1592年 1월에 朝鮮으로 出兵을 명령하였다.²⁷⁾

倭의 侵攻軍은 第1隊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第2隊 가토오 기요마사(加藤清正), 第3隊 구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 등 9個 侵攻部隊로 편성되었으며, 兵力은 158,700名에 이르렀다.²⁸⁾ 艦船 700隻, 兵力 9,450名으로 편성된²⁹⁾ 倭의 水軍은 侵攻軍의 兵力과 軍需物資의 輸送을 담당하고 海上作戰과 海上輸送路를 확보하는 任務를 띠고 있었다. 즉, 그들은 日本-對馬島-釜山으로 잇는 海上交通路를 유지하고 朝鮮의 西海岸을 따라 水陸으로 호응하여 북진한다는 것이었다.³⁰⁾

26) Mahan, 앞의 책, p. 166.

27) 佐藤和夫, 『日本水軍史』(東京: 原書房, 1985), pp. 351~356.

28) 위의 책, pp. 357~359.

29) 片野次雄, 『李舜臣と秀吉』(東京: 誠文堂新光社, 1986), p. 69.

30) 佐藤和夫, 앞의 책, p. 368.

壬辰年(1592年) 4月 14日에 釜山에 상륙한 倭軍은 그 날로 釜山鎭城을 함락 시킨 후 破竹之勢로 북상하여 5月 3日에 서울을 점령하고, 6月 17日에는 平壤城을 점령하였으며, 倭軍의 일부는 咸鏡道까지 진출하였다. 倭軍의 급속한 북상으로 말미암아 宣祖는 4月 30日 서울을 떠나 平壤을 거쳐 급기야 6月 22日에 鴨綠江邊의 義州로 피난하였으며, 咸鏡道로 들어간 王子 一行은 그 곳에서 倭軍에게 捕虜가 되는 치욕을 겪었다. 이 時期에 倭軍은 朝鮮의 8道 가운데 全羅道를 제외한 나머지 7道를 유린했던 것이다.

倭軍이 全羅道만을 쉽게 장악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地上軍이 陸戰에서 승승 장구했던 것과는 달리 海戰에서는 그들의 水軍이 全羅左水使 李舜臣이 지휘하는 朝鮮 水軍에게 연전연패 당하여 南海岸의 制海權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때맞추어 各地에서 朝鮮의 義兵들이 봉기하였기 때문이다.

원래 倭軍이 朝鮮을 침략했던 目的은 우선 朝鮮을 석권한 후 平壤에서 倭의 水·陸軍이 합세하여 水陸竝進으로 明을 침략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李舜臣이 지휘하는 朝鮮 水軍이 倭의 水軍을 공격하여 연전연승함으로써 南海의 制海權을 장악하고 倭軍의 海上交通路를 차단하였기 때문에 水陸竝進하려던 倭軍의 당초 計劃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따라서 平壤까지 침공한 倭軍은 平壤 以北으로는 더 진출할 수 없었다. 또한 各地에서 봉기한 義兵들이 倭軍에게 打擊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伸張된 그들의 陸上補給路에 대해서도 威脅을 가했던 것이다.

釜山浦海戰 이후 水陸竝進이 더욱 어렵게 된 倭軍은 陸路로 西進하여 南海岸一帶에 據點을 확보하고 全羅道를 침입하려는 計劃 아래 壬辰年 10月 6~10日에 晉州城을 공격하였으나, 晉州牧使 金時敏이 지휘하는 晉州城 軍·民의 완강한 抵抗을 받아 대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朝鮮의 官軍과 그 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朝鮮에 파견된 明軍이 朝·明聯合軍을 편성하여 倭軍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戰勢는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朝·明聯合軍은 反擊을 가하여 癸巳年

(1593年) 1月 9日에 平壤을 탈환하였다. 平壤에서 철수한 倭軍은 서울로 철수하였으나 2月 12日 幸州山城 戰鬪에서 대패하여 士氣가 크게 떨어져 급기야 그 해 4月에는 서울마저 포기하고 慶尙道 南海岸 地方으로 총퇴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慶尙道 南海岸 地方으로 총퇴각한 倭軍은 釜山을 중심으로 東쪽으로는 蔚山으로부터 西쪽으로는 熊川에 이르는 海岸線 一帶에 倭城을 구축하고 長期戰 態勢를 취하면서 明軍 代表와 講和 交渉을 시도하였다. 慶尙道 沿海岸 地方에 집결한 倭軍은 日本 本土로부터 兵力과 軍需物資를 지원받으며 그 해 6月에 晋州城을 공격할 計劃을 세웠다.

이 時期에 明軍과 倭軍 間에는 講和會談이 進行되고 있었는데, 倭軍이 다시 晋州城을 공격한 理由는 壬辰年 10月의 第1次 晋州城戰鬪의 敗北를 설욕한다는 것과 晋州를 據點으로 삼아 그 때까지 朝鮮의 後方基地로서 역할했던 全羅道를 유린하고 서울을 다시 점령하여 講和會談을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다. 한편으로 倭의 水軍은 1千餘 隻의 船舶을 熊川을 중심으로 鎭海灣 一帶에 집결시키고 여러 차례 見乃梁을 돌파하여 西進하고자 시도하였으나 李舜臣이 지휘하는 朝鮮 水軍이 이 곳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目的을 달성하지 못했다. 6月 下旬 第2次 晋州城 戰鬪에서 倭軍은 晋州城을 점령하였으나 그들도 막대한 兵力 損失을 보았다. 또한 그들의 水軍도 見乃梁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水陸並進하여 全羅道에 침공하려던 倭軍의 計劃은 다시 한번 좌절되었다.

晋州를 비롯한 河東, 泗川, 固城 등지로 진출했던 倭軍은 그해 7月에 南海岸 地方으로 다시 철수하였다. 倭軍이 南海岸 一帶로 퇴각하여 講和會談이 進行되는 동안, 戰況은 小康狀態를 유지하였다. 明軍側은 朝鮮側의 反對를 무릅쓰고 倭軍과 講和 交渉을 강행하였다. 이리하여 明軍側의 代表가 日本으로 건너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회담하기도 하고 明의 朝廷에서 정식으로 講和使를 파견하

는 등 明側에서 적극적으로 講和會談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朝鮮에 出兵한 대부분의 倭軍 將帥들도 講和로 戰爭을 종결짓고 조속히 朝鮮에서 철군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朝鮮 侵攻의 張本人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朝鮮에 대한 野慾을 버리지 못함에 따라 4年 이상 진행된 講和交渉은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2. 初期 朝鮮 水軍의 狀況

壬辰年(1592年) 4月 14日 倭軍의 第1隊는 朝鮮 水軍의 抵抗이 거의 없는 가운데 釜山에 상륙하였다. 이 날 僉使 鄭發이 선전분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과부적으로 인하여 釜山鎭이 함락되었으며, 그 다음 날 東來도 함락되었다.

慶尙左水使 朴泓은 전혀 對敵防禦의 態勢도 갖추지 못하고 陸上으로 패퇴하였다. 다만 多大浦 僉使 尹興信만 고군분투하였으나 전사하였으며, 慶尙左道 管下의 西生浦, 多大浦, 金海, 機張 등 모든 水軍陣이 함락되었다. 한편 慶尙右水使 元均도 많은 戰船과 裝備 그리고 將兵을 상실하고 피신함에 따라 巨濟島를 중심으로 한 守備陣도 붕괴되었다.

壬辰倭亂의 전반적인 情勢에 대하여 주의깊게 관찰할 수 있었던 당시의 宰相 柳成龍은 慶尙左右道 水軍이 붕괴되는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불행하게도 本道의 水陸 將帥는 다 비겁하였다. 바다에 있던 將帥로서 左水使 朴泓은 한 사람의 軍士도 움직이지 않았다. 右水使 元均은 비록 물길이 꽤 멀다고는 하나 거느리고 있는 艦船이 많았고, 또 敵兵이 하루 사이에 모두 온 것이 아니니, 여러 軍士를 모두 이끌고 앞으로 나가서 兵勢를 과시하면서 서로 대치하여 견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가 한번 승첩하면 敵은 마땅히 뒤돌아보는 걱정이 있어서 반드시 갑자기 깊이 쳐들어오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바람결만 바라보고 멀리 피하여 한번도 싸움을 한 일이 없었다.³¹⁾

31) 柳成龍, 『懲愆錄』 卷一.

여기서 柳成龍은 慶尙左右道 水軍이 허무하게 敗退하지 않고 兵勢를 과시하면서 견제라도 하였다면 倭軍이 함부로 깊이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논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慶尙左右道 水軍이 現存艦隊 戰略을 취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보겠다. 柳成龍은 특히 慶尙右道 水軍의 自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처음에 敵이 上陸하자, 元均은 敵勢가 큰 것을 보고 감히 출전하려 하지 않고 慶尙右水軍의 戰船 100여 척을 모조리 자침시키고 火炮와 軍器를 바다 속에 수장하였다. 홀로 수하 裨將 李英男, 李雲龍 등과 더불어 4隻의 배에 타고 昆陽 바다 입구에 이르러 상륙하여 敵을 피하려 하였다. 이에 水軍 1만여 명이 모두 무너졌다.³²⁾

이러한 점에서 李舜臣은 보다 적극적인 戰略的 思考를 가지고 있었다. 「臣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오늘날 賊(敵)의 勢力이 이같이 왕성하여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은 모두 海戰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賊을 마음대로 상륙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釜山과 東來 沿海岸의 여러 將帥들이 배를 잘 정비하여 바다에 가득 陣을 치고 掩擊할 威勢를 보이면서 情勢를 보아 戰船을 알맞게 兵法대로 진퇴하여 賊이 陸地로 기어오르지 못하게 했더라면 나라를 욕되게 한 患亂이 반드시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³³⁾ 즉, 李舜臣은 海戰을 통해서 敵의 上陸을 저지해야 한다는 點과 때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現存艦隊 戰略을 취함으로써 敵의 上陸을 거부해야 한다고 피력하였던 것이다.

비록 敵이 상륙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元均이 隸下의 戰船을 자침시키지 않고 어느 정도 勢力을 보존하고 巨濟島의 일부 水軍基地를 확보하여 倭軍의 背後를 위협하는 現存艦隊 戰略을 취했더라면, 이후 朝鮮 水軍의 海上作戰은 전반적

32) 위의 책.

33) 『李忠武公全書』 卷之二(赴援慶尙道狀(二)).

으로 보다 용이하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항상 戰船의 不足과 全羅 左水營(麗水)으로부터 遠距離로 출전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었던 李舜臣의 全羅左道 水軍이 작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나아가 戰況도 朝鮮에게 훨씬 유리하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4月 19日에 倭軍의 第3隊 구로다(黑田長政) 軍이 安骨浦에 도착하여 朝鮮 水軍을 격파하고 戰船 5隻을 탈취한 다음 그곳에 상륙하였으며 이어서 金海를 함락시켰다. 이처럼 慶尙左右道 水軍이 海戰다운 海戰을 한번도 치르지 못하고 패주하는 상황에서 倭軍은 無人之境과 같은 상태에서 순조롭게 上陸作戰을 진행하였다.

물론 敵이 이미 上陸을 단행하고 그들의 據點을 강화하였을 경우에도 역시 海軍의 課業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海軍은 敵의 海上交通路를 緝박함으로써 어느 때라도 敵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敵이 철수하게끔 압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리치몬드(Sir Herbert Richmond) 提督은 하나의 예를 제시하였다. 「1592年 韓國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하여 侵攻을 받았을 때, 韓國 海軍은 日本의 交通線을 차단하고 포위하였으며, 나아가 日本으로 하여금 本國으로 撤兵하도록 압박하는 등 日本軍을 봉쇄함으로써 祖國을 구원하였다.」³⁴⁾ 결국 이러한 課業은 李舜臣이 지휘하는 朝鮮 水軍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거의 아무런 抵抗도 받지 않고 初期 作戰에 성공한 倭의 水軍은 釜山, 熊川, 巨濟 一帶의 制海權을 장악하고 海上交通路를 확보하여 地上軍을 지원하면서 西南海上으로 進出을 기도하였다. 海上에서 朝鮮 水軍의 活動이 없다고 판단한 倭 水軍의 일부는 陸上으로 진출하여 地上戰鬪에 참가하였다.

34) Till, *Maritime Strategy and Nuclear Age*, 앞의 책, pp. 149~150에서 재인용

3. 壬辰年 海戰

倭亂이 발발하자 全羅左水使 李舜臣은 慶尙右水使 元均으로부터 倭船이 대거 출현하였다는 通報(4月 15日 夜間)와 釜山鎭이 함락되었다는 通報(4月 16日 夜間)를 접수하였다. 이에 따라 李舜臣은 軍士와 戰船을 정비하여 事變에 대비하여 朝廷의 命令을 기다렸다.³⁵⁾ 李舜臣은 朝廷으로부터 두 차례의 諭書(4月 26日 및 27日)를 받았는데, 이 두 諭書의 要旨는 管轄區域 밖으로 출전하여 賊(敵)船을 공격하라는 命令과 一線 指揮官으로서 作戰指揮權을 행사하라는 내용이었다.³⁶⁾

出戰準備를 마친 李舜臣은 「敵들이 돌아갈 길목을 막아 끊어서 敵船을 깨뜨린다면 敵 後方을 염려하여 바로 후퇴할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듯하여」³⁷⁾ 5月 4日 새벽에 全羅左道 水軍 板屋船 24隻, 挾船 15隻, 鮑作船 46隻을 지휘하여 慶尙道 海域으로 출전하였다. 李舜臣은 出戰目標를 敵의 退路를 차단하고 敵船을 격파하는 데 두었다. 그러면 後方을 염려한 敵이 철수할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그는 기대하였다.

5月 6日 元均과 慶尙右道 水軍 板屋船 4隻 및 挾船 2隻과 합류한 李舜臣은 첫 海戰인 玉浦海戰(5月 7日)에서 倭船 50餘隻이 정박중인 玉浦를 공격하여 敵船 26隻을 당파 분멸하는 큰 勝利를 거두었다. 그 이후의 戰鬥에서도 항상 그러하였듯이 李舜臣은 戰果의 중요한 尺度가 되는 敵의 首級을 거두는 데 급급하지 않고 오로지 敵을 사살하고 敵船을 격파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敵船의 擊破는 먼저 銃筒으로 敵船을 파괴하거나 당파한 다음에 불태워 버리는 것이었다. 당시의 戰船은 木船이었기 때문에 파괴되어도 쉽게 침몰하지 않았으므로, 불태워져 격파 또는 격침되었던 것이다. 敵船의 擊破를 철저하게 강조한 李舜臣의 戰術은 바로 그의 왕성한 決戰思想에 바탕을 둔 것이라 보겠다.

35) 『李忠武公全書』 卷之二〈因倭警待變狀(一 및 三)〉.

36) 위의 책, 卷首〈命從水路邀襲賊船 諭書〉 및 〈命與元均合勢功賊 諭書〉.

37) 위의 책, 卷之二〈赴援慶尙道狀(三)〉.

李舜臣은 玉浦海戰에 이어 合浦海戰(5月 7日) 및 赤珍浦海戰(5月 8日)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철저하게 探索作戰을 전개한 다음 발견되는 敵船을 끝까지 추적하여 격파하였다. 이 第1次 出戰에서 李舜臣이 지휘하는 全羅左道 水軍은 敵船 42척을 격파하는 일방적인 勝利를 거두었으며, 水軍 將兵의 自信感과 함께 慶尙道 沿海岸 軍·民의 士氣를 크게 진작시켰다 第1次 出戰에서 거둔 값진 勝利는 무엇보다 朝鮮 水軍이 南海岸에 대한 制海權 獲得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點이다.

倭船이 泗川, 昆陽까지 침범했다는 報告를 받은 李舜臣은 6月 3日로 예정했던 第2次 出戰을 앞당겨 5月 29日 거북선을 포함한 戰船 23隻을 지휘하여 全羅左水營을 출항하였다. 全羅左道 水軍은 그 날 露梁에서 다만 戰船 3隻을 거느린 元均과 합류한 후, 6月 3日에 李億祺가 지휘하는 全羅右道 水軍 戰船 25隻과 합류하였다. 이리하여 처음으로 3道 水軍으로 구성된 朝鮮 水軍의 統合艦隊가 편성되었다.

李舜臣이 지휘하는 朝鮮 水軍은 泗川海戰(5月 29日), 唐浦海戰(6月 2日), 唐項浦海戰(6月 5日), 栗浦海戰(6月 7日) 등 여러 海戰을 통해서 倭船 72隻을 격파하는 큰 戰果를 거두었다. 李舜臣은 이러한 戰果에 만족하지 않고 倭船에 대한 철저한 探索作戰을 전개하였다. 6月 7日 三道 水軍은 加德島를 거쳐 沒雲臺 앞 海上까지 진출하여 倭船에 대한 探索을 실시하였고, 6月 8日과 9日에는 馬山浦, 安骨浦, 薺浦, 熊川과 加德島 일대에 대하여 倭의 水軍을 탐색한 후에 敵船이 없음을 확인하고 6月 10日에 陣을 파하고 귀항하였다. 이리하여 李舜臣은 第2次 出戰을 통해서 加德島 以西의 倭 水軍을 일소하고 制海權을 확립하였다.

李舜臣의 第2次 出戰時에 수행된 여러 海戰에서 나타난 가장 현저한 特徵의 하나는 거북선의 뛰어난 활약이었다. 唐項浦海戰의 예를 들어 거북선의 활약을 보면,

여러 戰船이〔倭船을〕포위하고 먼저 거북선을 돌입케 하여 天·地字銃筒을 쏘아 敵의 大船을 꿰뚫게 하고 여러 戰船이 서로 번갈아 드나들며 銃筒과 箭丸을 우리처럼 쏘면서 한참 동안 접전하여 우리의 武威를 더욱 떨쳤습니다.…… 우리의 여러 戰船이 4面으로 포위하면서 재빠르게 挾擊을 가하고 突擊將이 탄 거북선이 또 敵의 層閣船 밑으로 달려가서 銃筒을 치솟아 層閣船을 깨뜨리고 여러 戰船이 또 火箭으로 그 비단 장막과 돛배를 쏘아 맞혔습니다. 그러자 맹렬한 불길 일어나고 層閣 위에 앉았던 倭將이 화살에 맞아 떨어졌습니다.³⁸⁾

李舜臣은 戰船으로 倭船의 脫出을 봉쇄하고 거북선을 돌진시켜 먼저 敵의 旗艦을 파괴토록 하였다. 거북선을 사용한 李舜臣의 이러한 戰術은 敵船을 철저하게 격파 섬멸하는 데 海戰의 目標을 두었다. 다만 敵船을 격파하는 데 있어서 항상 李舜臣을 괴롭혔던 것은 倭船이 파괴되면 倭軍이 陸地로 도망친다는 것과 陸地로 도망친 倭軍이 朝鮮의 良民을 살육하고 분탕질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李舜臣은 浦口 안의 敵船을 공격할 때에 泗川海戰의 경우와 같이 敵을 浦口 밖으로 유인하기도 하고 唐項浦海戰에서와 같이 짐짓 小船 몇 隻을 남겨두어 그들이 탈출할 때 포획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다음의 安骨浦海戰의 경우처럼 包圍를 잠시 풀기도 하였다.

여기서 당시 倭 水軍의 戰略的 過誤와 敗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壬辰倭亂 초기에 無人之境처럼 활보했던 倭 水軍은 慶尙左右道 水軍이 궤멸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朝鮮 水軍을 그들의 眼中에 두지도 않았고 制海權의 確保에 關心을 두지 않았다고 보겠다. 그리하여 地上軍의 輸送과 護送을 예정대로 수행한 倭 水軍은 그들의 地上軍이 승승장구하며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侵攻作戰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판단하고 인근 陸地에 상륙하여 분탕질을 자행하면서 南海岸을 따라 서진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李舜臣이라는 強敵을 만나 각개 격파당했던 것이다. 倭 水軍이 制海權의 確保 또는 擴張에

38) 『李忠武公全書』卷之二〈唐浦破倭兵狀〉.

關心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戰略的 過誤가 아닐 수 없었다.

반면에 李舜臣은 第1次 出戰時에 「敵船 500餘 隻이 釜山, 金海, 梁山, 鳴旨 島 등지에 정박하고 함부로 상륙하여 沿海邊의 각 고을, 浦口, 兵營과 水營을 거의다 점령하였다.」³⁹⁾는 막연한 情報만을 가지고 출동하였다. 李舜臣은 「한번 죽을 것을 기약하고 곧 범의 굴을 바로 두들겨 요망한 敵을 소탕하여 나라의 수치를 만분의 일이라도 씻으려고」⁴⁰⁾하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24隻에 불과한 戰船을 지휘하여 자신의 勢力보다 20배 정도 강한 倭의 水軍에 대적하기 위하여 출전하였다. 李舜臣은 倭 水軍의 主力部隊와 決戰도 각오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분산된 倭 水軍에 대하여 기습적인 攻擊을 가하고 退路를 차단한다는 意圖를 가졌던 것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하면 李舜臣은 現存艦隊 戰略의 적극적인 方法인 치고 빠지는(hit and run) 戰術을 구상하였다고 보겠다. 결과적으로 李舜臣은 第1, 2次 出戰을 통해서 분산된 倭 水軍을 각개 격파하여 누진적으로 戰果를 확대하고 制海權을 확장해 나갔던 것이다.

李舜臣의 활약에 威脅을 느낀 倭軍은 地上戰鬪에 가담했던 水軍將 와키사카 야스하루(脇坂安治)를 水軍에 복귀시키고 釜山浦를 수비하고 있는 水軍將 구키 요시타카(九鬼嘉隆), 가토오 요시아키(加藤嘉明)와 함께 朝鮮 水軍을 격파하기 위한 적극적인 攻勢를 준비하였다. 특히 6月 28日 도요토미는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들 3名の 水軍將에게 朝鮮 水軍을 격멸하고 水陸竝進할 수 있도록 하라는 命令을 하달하였다.⁴¹⁾

이러한 敵의 動態를 주시하던 李舜臣은 李億祺와 함께 戰船 48隻을 지휘하여 7月 6日 麗水를 출항하였으며, 그날 露梁에서 元均의 戰船 7隻과 합류하였다.

39) 위의 책, 卷之二(赴援慶尙道狀(二)).

40) 위의 글.

41) 佐藤和夫, 앞의 책, p. 377.

倭의 水軍將 와키사카는 그가 지휘하는 艦隊를 이끌고 7月 6日 熊川을 출항하여 見乃梁으로 진출하였다. 원래 와키사카는 구키, 카토오 艦隊와 합세하여 朝鮮 水軍과 一戰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와키사카는 자신의 能力을 과신하고 구키와 카토오의 艦隊가 熊川에 도착하기 전에 朝鮮 水軍을 찾아 나섰던 것이다.

敵의 艦隊가 見乃梁에 정박중임을 확인한 李舜臣은 敵을 機動空間이 넓은 閑山島 앞 海上으로 유인하여 포위 섬멸할 作戰을 구상하였다. 즉, 見乃梁은 水路가 좁고 暗礁가 많아 板屋船과 같은 大型 戰船의 行動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敵船을 공격할 경우에 敵은 상황이 불리하게 되면 戰船을 포기하고 陸地로 도주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⁴²⁾

7月 8日 李舜臣은 板屋船 數隻을 見乃梁에 진입시킨 후 見乃梁으로 진출한 敵의 攻撃을 유인하였다. 敵의 艦隊가 朝鮮 艦隊를 추격하여 閑山島 앞 海上에 이르렀을 때, 朝鮮 艦隊는 鶴翼陣의 攻撃陣形을 전개하여 敵을 포위 공격하였다. 倭船은 73隻(大船 36隻, 中船 24隻, 小船 13隻)으로 數적으로 朝鮮 水軍과 대등하였다. 이 閑山島海戰에서 朝鮮 水軍은 1隻의 피해도 없이 倭船 59隻을 격파하는 大勝을 거두었다. 倭船 가운데 14隻(와키사카 자신의 旗艦과 中船 7隻, 小船 6隻)만이 도주할 수 있었다.⁴³⁾

7月 10日 朝鮮 水軍은 閑山島海戰의 勝勢를 몰아 安骨浦의 倭 水軍을 공격하였다. 倭의 水軍將 구키와 카토오가 지휘하는 增援勢力 42隻이 安骨浦에 정박하고 있었다. 安骨浦는 浦口가 좁아 大船의 機動에 불리하였다. 敵을 外洋으로 여러 차례 유인하였으나 敵이 불응함에 따라, 朝鮮 水軍은 교대로 浦口에 출입하며 종일토록 敵船을 공격하여 20隻을 격파하였다. 11일 새벽에 李舜臣은 安

42) 『李忠武公全書』 卷之二 〈見乃梁破倭兵狀〉.

43) 閑山島海戰의 상세한 經過에 대해서는 鄭鎮述, “閑山島海戰 研究” 海軍軍史研究室 編,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海軍軍史研究室, 1993), pp. 159~194 참조.

骨浦를 다시 공격하기 위하여 그 곳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敵이 모두 밤을 이용하여 도주하였기 때문에, 李舜臣은 艦隊를 지휘하여 그 날 오전에 加德島 北쪽 바다에 이르렀다. 李舜臣은 搜索部隊를 편성하여 梁山江과 金海江 浦口 일대를 수색하였으나 敵船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李舜臣은 加德島 外海로부터 東來와 沒雲臺에 이르기까지 戰船을 늘여세워 해질 무렵까지 대대적인 艦隊 示威를 감행하였다. 날이 어두워진 후에 李舜臣 艦隊는 加德島 天地堡를 거쳐 閑山島로 이동하였다.

李舜臣은 第3次 出戰에서 三道 水軍을 지휘하여 倭船 약 80隻을 격파하였다. 이리하여 水陸合同으로 西進하려던 倭軍의 計劃이 완전히 좌절되었다. 이후에 倭軍은 海戰을 회피하고 海岸에 축성하여 地上軍의 支援를 받으며 저항하였다. 뒷날 柳成龍은 閑山島海戰의 意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보다 먼저, 賊將 平行長이 平壤에 이르러 書面으로 보내어 말하기를, 「日本の 水軍 10여 만명이 또 서해로부터 옵니다. 알지 못하거니와 大王의 행차는 여기서 어디로 가시렵니까?」하였다. 대체로 敵이 본래 水軍과 陸軍을 합세하여 西쪽으로 내려 오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 閑山도 싸움(閑山島海戰)에 힘입어 드디어 敵의 한 팔을 끊어 버렸으므로 行長이 비록 平壤을 얻었으나 軍勢가 고립되어 감히 더 전진하지 못하였다. 國家가 全羅道, 忠清道와 黃海道, 平安道の 海岸 一帶를 보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軍糧을 조달할 수 있었고…… 明나라의 軍士가 陸路를 와서 구원하여 敵을 물리치게 된 것이니, 다 이 한 싸움의 功績인 것이다.⁴⁴⁾

한편 閑山島海戰의 敗報를 보고 받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倭의 水軍將 와키 자카 야스하루에게 水軍의 경거망동을 크게 질책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또한 水軍將 토오토오 다카도라(藤堂高虎)에게 大鐵砲 300挺과 彈藥을 보내어

44) 柳成龍, 앞의 책, 卷一.

巨濟島와 그 周邊의 여러 城에 分置케 하고 구키 요시타카, 가토오 요시아키 등과 함께 수비하도록 명령하였다.⁴⁵⁾ 이리하여 倭의 水軍將들은 根據地를 정비하고 無用한 海戰을 피했다. 그리고 그들은 소모된 軍船을 보충하기 위한 建造와 回送에 전력을 다하였다.⁴⁶⁾ 또한 실제에 있어서도 閑山島海戰 이후로 加德島以西에서 倭船의 그림자를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⁴⁷⁾

李舜臣은 全羅右水使와 협의하여 8月 1日 左道 本營 麗水 앞 바다에서 全羅 左右道 水軍으로 統合艦隊를 편성하고 出戰을 준비하였다. 즉, 李舜臣은 倭軍이 「도망해 갈 時期를 이용하여 水陸으로 合攻하기 위하여 左右道 戰船 74隻과 挾船 92隻을 모두 갑절이나 엄하게 정비하여 8月 1日 結陣하고 거둑 約束을 명확히 하였다.»⁴⁸⁾ 이는 倭 水軍의 集結地인 釜山浦를 水陸으로 공격하려는 중대한 決戰에 대비하여 戰船을 철저히 정비하였음은 물론 統合艦隊의 訓練을 계속 하면서 戰意를 새롭게 하였음을 뜻한다. 이리하여 全羅左右道 水軍으로 편성된 統合艦隊는 8月 24日 麗水を 출항하였으며, 25日에 蛇梁 앞 바다에서 元均의 水軍과 합류하였다.

한편 구키 요시타카, 토오토오 다카도라, 와키사카 야스하루 등 倭의 水軍將들은 머지않아 李舜臣이 지휘하는 朝鮮 水軍이 釜山浦를 공격할 것임을 예견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즉, 그들은 釜山浦에 집결한 470餘 隻의 艦船을 모두 釜山浦 東쪽 海岸에 정박시켜 陸岸을 背後에 둔 態勢로 陣容을 갖추고 朝鮮 水軍의 來龍에 대비했던 것이다.⁴⁹⁾

三道 水軍은 28日과 29日에 加德島 周邊을 탐색한 후 敵이 없음을 확인하고 敵의 本據地인 釜山浦를 향해 진격하였다. 三道 水軍은 釜山浦로 접근하는 동안

45) 佐藤和夫, 앞의 책, p.379.

46) 위의 책, p. 402.

47) 『李忠武公全書』 卷之二 〈釜山破倭兵狀〉, 加德以西 頓絶形影.

48) 위의 글.

49) 片野次雄, 앞의 책, pp. 182~184.

곳곳에서 조우한 倭船 약 30隻을 격파하였다. 三道 水使는 倭船 470餘 隻이 釜山浦에 정박중인 것을 확인하고 바로 倭의 艦隊를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三道 水軍은 長蛇陣으로 敵陣을 향해 돌진하여 近接戰鬥을 벌인 끝에 일몰시까지 敵船 100餘 隻을 격파하고 夜間에 회항하였다.

李舜臣이 지휘하는 朝鮮 水軍은 第4次 出戰에서 倭船 약 130餘 隻을 격파하는 일방적인 勝利를 거두었다. 당시 釜山은 朝鮮을 침략한 倭軍의 橋頭堡이자 北上한 倭軍의 補給根源地였다. 그러므로 釜山浦海戰은 物理的으로나 心理的으로 倭軍에게 일대 打擊을 가한 海戰이었다. 釜山浦海戰 이전에 수행된 海戰은 朝鮮 水軍이 분산된 소규모 倭 水軍을 각개 격파하는 樣相으로 진행되었으며, 倭船의 數가 많았어도 70餘 隻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釜山浦海戰에서 朝鮮 水軍은 敵의 根據地에 집결한 470餘 隻을 상대로 적극적인 攻擊을 가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釜山浦海戰은 閑山島海戰과 더불어 李舜臣이 적극적으로 決戰을 추구했던 전형적인 戰例라 보겠다. 그리고 釜山浦海戰은 朝鮮 水軍이 制海權을 확인한 海戰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⁵⁰⁾

李舜臣이 第4次 出戰에서 거둔 釜山浦海戰의 勝利는 倭軍의 水陸竝進策을 완전히 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朝鮮 水軍에 의한 釜山浦 再攻擊의 可能性과 日本-對馬島-釜山으로 잇는 海上交通路의 遮斷 可能性을 보여주었다. 釜山浦海戰 이후 水陸竝進이 어렵다고 판단한 倭軍은 陸路로 西進하기 위하여 그 해 10月 晋州城을 공격하였으나 대패하였다.

釜山浦에 대한 再攻擊의 可能性은 內陸으로 침입한 倭軍에게 상당한 정신적 壓迫感을 주고 釜山 防禦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日本-對馬島-釜山으로 잇는 海上交通路에 대한 遮斷 可能性에 있어서 당시까지 慶尙道에 마

50) 釜山浦海戰에 관해서는 金鍾基, “釜山浦海戰”, 海軍軍史研究室 編, 앞의 책, pp. 133~158 참조.

땅한 前進基地를 확보하지 못해 상당한 遠距離를 이동하여 작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全羅左右道 水軍으로서는 이 海上交通路를 계속 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4. 癸巳-丙申年 海戰

朝鮮 水軍이 不意에 倭軍의 根據地인 釜山浦를 공격한 이후, 倭 水軍의 海上活動은 한동안 크게 위축되었다. 또한 倭軍은 朝鮮 水軍의 威脅으로 인하여 日本-釜山 간의 海上交通路 確保에 전전긍긍하게 되었으며, 守勢에 몰려 基地의 保護에 급급하였다. 釜山浦海戰 이후로 오랜 期間 동안 南海에서는 海戰다운 海戰이 없는 가운데 海上의 狀況은 小康狀態로 이어졌다. 이는 基地에 칩거하여 陸軍화된 倭의 水軍이 朝鮮 水軍과의 海上戰鬥을 한결같이 기피하였기 때문이다.⁵¹⁾

癸巳年(1593年) 1月 9日 朝·明聯合軍의 攻擊을 받아 平壤城에서 철수한 倭軍은 2月 12日 幸州山城 戰鬥에서 대패하고 그 해 4月 18日 서울에서 철수한 후 慶尙道 沿海地方에 집결하여 長期戰 態勢를 취하였다. 이러한 狀況에서 倭軍의 根據地인 釜山에 대한 再攻擊과 日本으로부터 釜山에 이르는 倭軍의 海上交通路 遮斷에 관한 問題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李舜臣은 癸巳年 1月 22日부터 그 해 7月 初까지 朝廷으로부터 水軍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敵의 退路를 차단하고 釜山 等地를 공격하라고 명령하는 諭書를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었다.⁵²⁾

그리하여 釜山浦海戰 이후 戰備態勢를 갖추며 機會를 기다리던 李舜臣은 諭書에 따라 朝·明聯合軍이 陸上에서 반격할 때 海上에서 退路를 차단하기 위하여 癸巳年 2月 2日에 全羅左道 水軍을 이끌고 출전하였으며, 2月 7日과 8日에 見乃梁에서 慶尙右水使 元均과 全羅右水使 李億祺의 水軍과 합류하였다. 그러나

51) 例컨대 李舜臣, 『亂中日記』 癸巳年 2月 10, 12, 18, 22日字 참조.

52) 『李忠武公全書』 卷首 〈命率舟師截賊歸路 諭書(一~四)〉 및 〈命依經略言先焚釜山 諭書〉 참조.

倭의 水軍은 熊川 浦口에 船舶을 감추고 浦口의 防備를 굳게 하고 소굴을 많이 만들어 웅거하고 있었다.⁵³⁾ 倭軍은 이미 釜山에 대한 再攻擊을 저지하기 위하여 熊川에 강력한 水軍 前進基地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李舜臣은 「熊川의 倭軍이 釜山으로 가는 길목을 차지하고 험한 地形에 웅거하여 艦船을 감추고 소굴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곳의 敵을 먼저 제거해야만 釜山으로 진격할 수 있다.」⁵⁴⁾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李舜臣은 이 「요긴한 길목을 지키는 敵을 섬멸한 다음에 梁山과 金海의 退路를 차단하여 背後의 威脅을 제거하고 점진적으로 釜山으로 진격하여 도망치는 敵을 막고 섬멸해야 하므로」⁵⁵⁾ 慶尙道 巡察使 金誠一에게 水陸合攻을 재촉하였다.

三道 水軍은 2月 10日부터 그 해 4月 初까지 여러 차례 熊川 一帶의 倭 水軍을 공격하였으나, 倭 水軍은 朝鮮 水軍의 威勢에 놀려 끝내 응전하지 않았다. 따라서 三道 水軍은 倭 水軍을 섬멸하기 위하여 伏兵船을 배치하고 少數의 兵船으로 敵을 유인하였으나, 倭 水軍은 李舜臣이 원하는 海上戰鬪에 응하지 않고 주로 陸上에서 항전하였다. 海上으로부터 일방적인 攻擊을 가해보았지만 큰 成果를 거두지 못하자 三道 水軍은 2月 22日에 射夫들을 뽑아 義僧兵과 함께 東쪽으로 安骨浦, 西쪽으로는 齊浦에 상륙시켜 水陸合攻作戰을 감행하여 많은 戰果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倭軍을 완전히 소탕하지는 못하였다.

약 2個月에 걸친 이 熊浦海戰에서 李舜臣은 2月 28日과 3月 6日에 산기슭에 있는 敵의 陣地에 飛擊震天雷를 사용하여 상당한 倭軍을 살상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다시 3月 10日에 李舜臣은 火功으로 敵을 섬멸하기 위하여 火船을 준비하였으나 明軍의 進擊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敵船만 불태워 없앤다면 窮地에 몰린 倭軍이 陸地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여 良民의 被害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火船으로 공격하는 것을 중지하였다.

53) 위의 책, 卷之三 〈令水陸諸裝置擲熊川狀〉.

54) 위의 책, 卷之三 〈討賊狀〉.

55) 위의 책, 卷之三 〈令水陸諸裝置擲熊川狀〉.

李舜臣이 釜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먼저 熊川 一帶의 倭軍을 공격하여 側方의 威脅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朝鮮 水軍이 적극적인 海上攻擊을 가했음에도 倭軍이 海戰에 응하지 않고 陸上에서만 항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朝廷의 情勢判斷과는 달리 陸上으로부터 朝·明聯合軍의 反擊도 지체되었기 때문에, 李舜臣은 기대했던 전면적인 水陸合攻作戰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李舜臣이 지휘하는 三道 水軍이 釜山을 공격하고 倭軍의 退路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熊川 一帶의 倭軍 掃蕩과 水陸合攻作戰 그리고 忠淸道 水軍의 增援⁵⁶⁾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외에도 三道 水軍의 作戰時에 慶尙右水使 元均의 非協助,⁵⁷⁾ 明軍 將帥들의 作戰指揮權 干涉,⁵⁸⁾ 水軍의 不足과 軍糧의 결핍⁵⁹⁾ 등은 직·간접적으로 李舜臣의 海上作戰에 制限을 가하는 要因이 되었다.

한편 倭軍의 立場에서 볼 때, 倭의 水軍은 이미 閑山島海戰에서 패한 다음 海上戰鬪에서 自信을 잃고 水軍의 本分인 海戰보다는 陸上에 陣地를 구축하고 守備에 전념하였던 것이다. 倭 水軍은 이미 安骨浦海戰에서 이러한 守勢的 戰略·戰術을 시도하기 시작하였으며, 釜山浦海戰에서 더욱 본격화했던 것이다. 釜山浦海戰 이후에 倭 水軍은 더욱 守勢的 戰略·戰術을 채택하여 朝鮮 水軍과의 海上戰鬪를 회피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戰略·戰術은 海上戰鬪에서 自信을 잃은 倭軍이 戰局의 現狀維持와 나아가 약화된 水軍勢力의 增強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유일한 方策이 되었던 것이다.⁶⁰⁾

倭의 水軍이 이처럼 陸上의 要衝地에 陣地를 구축하고 朝鮮 水軍의 海上攻擊에 正面으로 대응하지 않고 海上戰鬪를 기피한 戰略은 第Ⅱ章에서 설명한 바 있는 要塞艦隊 戰略의 한 類型이라고 보겠다. 要塞艦隊 戰略을 취하는 倭의 水軍

56) 위의 책, 卷之三 〈請湖西舟師繼援狀(一~二)〉 참조.

57) 예컨대 『亂中日記』 癸巳年 2月 22日 및 23日字 참조.

58) 『李忠武公全書』 卷首 〈命聽候經略 諭書〉, 〈命依經略先焚釜山 諭西〉 및 〈命授副摠節制 諭書〉 참조.

59) 위의 책, 卷之三 〈請湖西舟師繼援狀(一)〉 및 〈陳倭情狀〉 참조.

60) 金鍾基, “釜山浦海戰” 앞의 글, p. 150.

을 격파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海上戰鬥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陸地로부터 背後攻擊을 가하는 水陸合攻作戰이 최선의 方策이라고 보겠다.

그리하여 이러한 狀況에서 倭의 水軍勢力이 점진적으로 보강되었다. 癸巳年 6月 15日에 이르러 倭船은 大·中·小船을 아울러서 무려 700~800餘 隻으로 증강되었으며, 釜山, 梁山, 金海로부터 熊川, 薺浦, 安骨浦 等地로 이동하여 水陸으로 침공하려는 樣相을 보였다. 또한 6월 23日에는 熊川の 倭船들이 巨濟島의 永登浦, 松津浦, 長門浦, 河清, 加里 等地로 이동하였다.⁶¹⁾ 따라서 朝鮮 水軍은 三道의 板屋戰船 겨우 100餘 隻⁶²⁾을 가지고 見乃梁과 閑山島 等地에 陣을 치고 內海와 外海의 敵에 대하여 굳게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李舜臣과 三道 水軍이 釜山을 재공격하고 나아가 倭軍의 進路를 차단한다는 것은 水陸合攻作戰을 수행하기 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거듭 朝廷으로부터 倭軍의 退路를 차단하라는 命을 받은 李舜臣은 5月 7日 慶尙道를 향해 출전하여 見乃梁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三道 水軍의 勢力은 李舜臣의 全羅左道 戰船 42隻과 伺候小船 52隻, 李億祺의 全羅右道 戰船 54隻과 伺候小船 54隻⁶³⁾ 그리고 元均의 慶尙右道 戰船 2隻⁶⁴⁾이었다. 한편 昌原, 金海, 梁山上에 웅거하여 釜山으로 향하는 길목을 막고 있는 倭軍의 勢力이 왕성하기 때문에, 朝鮮 水軍이 釜山으로 진격하려면 陸軍과 힘을 합쳐 이 길목의 倭軍을 제거해야만 되었으며, 왕성한 倭軍 勢力을 대적하기에는 三道 水軍의 勢力이 부족하기 때문에 忠淸道 水軍의 來援이 절실하였던 것이다. 忠淸水使 丁傑이 이끄는 忠淸道 水軍은 6月 1日에 李舜臣의 水軍과 합세하였다.

61) 『李忠武公全書』 卷之三〈陳倭情狀〉 참조.

62) 위의 글, 三道板屋戰船 僅至百有餘隻.

63) 위의 책, 卷之三〈請湖西舟師繼援狀(二)〉.

64) 『亂中日記』 癸巳年 5月初 9日字.

癸巳年 5月 7日 출전한 이래 약 2個月 동안 李舜臣은 見乃梁을 중심으로 柚子島, 漆川島, 烏楊驛, 弗乙島 等地로 倭船을 탐색하면서 倭船이 見乃梁을 침범하지 못하게 되었다. 倭船이 여러 차례 見乃梁 方面에 출현하였지만, 그 때마다 朝鮮 水軍이 출동하면 그들은 역시 戰鬪를 기피하고 도주하였다. 이 期間에 朝鮮 水軍이 倭船을 끝까지 추격하지 않고 격퇴만 한 것은 「필시 倭賊들이 우리 軍士를 유인하여 左右와 背後로 포위하려는 計策이 있었기 때문에 要路를 굳게 지키기」⁶⁵⁾ 위함이었다.

6月 中旬에 무려 800餘 隻이나 되는 倭船이 釜山과 金海로부터 熊川, 薺浦, 安骨浦 等地를 이동하여 敵이 水陸으로 나뉘어 西쪽으로 침범할 기색이 현저하므로, 李舜臣은 李德禕 및 元均과 상의하여 敵의 길목인 見乃梁과 閑山島 바다 가운데를 가로막아 陣을 벌였다.⁶⁶⁾ 이는 「朝鮮 水軍이 巨濟島 內海에 陣을 치면 外海로 침범해 오는 적을 미처 달려가서 가로막지 못하겠고, 外海에 陣을 치면 內海의 敵을 미처 요격하지 못하겠으므로 巨濟島 外海의 두 갈래진 要衝地이자 壬辰年에 대첩한 見乃梁과 閑山島 等地에 陣을 합하여 길을 막고 겸하여 內海와 外海쪽의 突發事態에 대응키로 하였다.」⁶⁷⁾

6月 中旬에 釜山, 金海 방면의 倭船 800餘 隻이 西쪽으로 이동하여 熊川, 薺浦, 安骨浦 等地에 집결한 것은 倭軍의 第2次 晋州城 攻擊(6月 22日)을 지원하고 동시에 水陸竝進으로 西進하려는 意圖였던 것이다. 이러한 時點에서 李舜臣이 三道 水軍을 지휘하여 見乃梁을 고수한 것은 制海權의 確保, 維持 方法의 하나인 艦隊封鎖의 概念이며, 倭 水軍의 西進을 차단하고 朝鮮 水軍이 巨濟島 以西의 制海權을 확보 유지하는 최선의 方策이었던 것이다. 이 見乃梁의 封鎖는 오늘날의 海峽統制(chokepoint control) 概念과 일치한다고 보겠다.

65) 『李忠武公全書』 卷之三 〈逐倭船狀〉.

66) 위의 글.

67) 위의 책, 卷之三 〈陳倭情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戰況이 小康局面에 접어든 상황에서 倭 水軍은 要塞艦隊 戰略을 취하면서 朝鮮 水軍의 釜山攻擊에 대응하였다. 즉, 그들은 熊川을 비롯하여 薺浦, 安骨浦, 加德島의 加德과 天城 그리고 巨濟島 北端의 永登浦, 松津浦, 長門浦 등지에 水軍基地를 구축하고 各浦에 800餘 隻의 艦船을 분산 배치하였다. 예를 들어 長門浦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倭船 120隻 정도를 배치하고 朝鮮의 火砲인 天字 및 地字銃筒을 배치하여 朝鮮 水軍의 攻擊에 대응하였다.⁶⁸⁾ 倭의 水軍이 이처럼 前進基地를 구축하고 요새화한 것은 기회가 있으면 見乃梁을 돌파하여 西進하겠다는 것과 그들의 水軍 本據地가 된 釜山을 방어하겠다는 戰略이었다. 그들은 熊川, 加德島 및 巨濟島 北端으로 잇는 三角 據點을 형성하여 서로 호응하면서 朝鮮 水軍이 釜山을 공격할 때 통과해야 할 鎮海灣의 東쪽 出口에 대하여 海峽統制를 한다는 것이었다.

癸巳年 7月 15일에 李舜臣은 자신의 本營이 全羅道 즉, 西쪽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海上을 막고 지휘하기가 어려우므로 마침내 陣을 閑山島로 옮기고 朝廷의 許可를 받았다.⁶⁹⁾ 閑山島 豆乙浦에 水軍基地를 설치한 다음 달에 李舜臣은 三道水軍統制使로 임명되었다 李舜臣은 沿海岸 各 地方에 屯田을 설치하여 自給自足を 꾀하고 戰備態勢를 강화하면서 長期戰에 대비하였다.

三道水軍統制使로서 閑山島에 머무르는 동안 李舜臣은 각처의 望臺에 望將을 배치하고 要路에는 伏兵將을 파견하여 敵情을 탐색하고 警戒態勢를 유지하고 있었다. 甲午年(1594年) 3月 3日 望將으로부터 唐項浦와 鎮海(鎮東) 等地에 倭船이 출현하였다는 報告를 받은 李舜臣은 巡邊使 李蕘에게 그 전의 約束대로 「軍士와 말을 거느리고 달려가 陸地로 올라간 倭賊을 무찔러 잡도록」⁷⁰⁾ 통고한 후, 그 날밤을 이용하여 三道水軍을 이끌고 見乃梁을 통과하였다. 4日 새벽에

68) 위의 책, 卷之四〈陳倭情狀〉倭軍에게 捕虜가 되었다가 탈출한 金應之의 陳述 참조.

69) 위의 책, 卷之九, 李芬〈行錄(一)〉 참조. 閑山島로 陣을 옮긴 것은 7月 14日이다. 『亂中日記』 癸巳年 7月 14日字 참조.

70) 『李忠武公全書』 卷之四〈唐項浦破倭兵狀〉.

李舜臣은 戰船 20餘 隻을 見乃梁 入口에 머물게 하여 만일의 事態에 대비케 하고, 31名의 將帥를 선발하여 水軍 助防將 魚泳潭의 指揮 아래 倭船이 출현한 곳으로 급파하였다. 李舜臣은 李億基 및 元均과 함께 主力艦隊를 지휘하여 永登浦와 長門浦의 敵陣 앞바다에서 鶴翼陣으로 倭軍의 退路를 봉쇄하였다.

3月 4日 倭船 10隻이 鎭海로부터 출항하는 것을 보고 魚泳潭 이하 여러 將帥들이 추격하여 모두 불태워버렸다. 이어 4日과 5日에 魚泳潭은 唐項浦에 정박 중인 倭軍을 공격하였는데, 倭軍이 모두 陸地로 도망가고 빈배로 남은 倭船 21隻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이날 朝鮮 水軍은 鎭海灣에서 대규모 艦隊示威를 전개하여 永登浦, 長門浦 등 海岸에 웅거한 倭軍들에게 心理的 壓迫을 가했다. 이 第2次 唐項浦海戰의 경우에 水·陸軍이 상응하여 동시에 공격했다라면 陸地에 오른 倭軍을 거의 섬멸할 수 있었을 것이나, 水·陸軍이 주둔한 곳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水陸合攻作戰을 집행할 수 없었다.

李舜臣은 都元帥 權慄과 여러 차례 상의한 후, 甲午年 9月 22日에 權慄로부터 水陸合攻作戰을 위한 指令을 받았다. 9月 27日 李舜臣은 閑山島를 출항하여 赤島에서 郭再祐와 金德齡이 지휘하는 陸軍을 탑재하였다. 29日에 朝鮮 水軍이 海上으로부터 長門浦를 공격하였으나, 倭軍은 陸地에 은신한 채 응전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10月 4日에 郭再祐와 金德齡의 陸軍을 상륙시키고 朝鮮 水軍이 浦口를 공격하였으나 陸軍은 倭軍이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계속 싸우지 않고 배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 長門浦海戰에서 李舜臣은 기대했던 戰果를 거두지 못하고 閑山島로 귀항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陸軍의 兵力이 충분하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陸軍의 無能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李舜臣이 戰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限界가 있었던 것이다. 要塞艦隊 戰略을 취하는 倭 水軍에 대하여 李舜臣은 水陸合攻作戰을 주장하였고 또한 이를 시도하였으나, 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렇다면 李舜臣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艦隊封鎖 戰略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비록 倭水軍에 비하여 數的으로 열세하지만 강력한 艦隊를 보유했던 李舜臣은 倭水軍의 일부 基地(例를 들면, 巨濟島 北端에 위치한 그리고 어느 정도 고립된 長門浦, 松津浦, 永登浦 등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艦隊封鎖를 가함으로써 倭軍을 계속 압박하고, 나아가 그들의 海上交通路를 위협하는 적극적인 戰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그리고 당시에 李舜臣이 熊川과 永登浦 一帶의 倭軍基地를 거치지 않고 釜山을 공격하고 倭軍의 海上交通路를 공격하는 方法은 없었겠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壬辰年 第1次 出戰 때와 같이 朝鮮水軍이 巨濟島 外海를 돌아 松未浦에서 밤을 지낸(휴식을 취한) 후 釜山으로 출격하면 釜山에 대한 攻擊과 對馬島-釜山을 잇는 倭軍의 海上交通路에 대한 攻擊은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 경우에 朝鮮水軍의 1/4~1/3 정도의 戰船은 李億祺나 魚泳潭과 같은 유능한 將帥의 지휘 아래 見乃梁을 봉쇄하여 만약의 事態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方策은 遠距離 出戰이라는 點, 水軍을 분할해야 한다는 點, 玉浦 周邊의 倭軍狀況 그리고 氣象과 軍糧 등의 여러 條件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중에 살펴 보겠지만 巨濟島 外海를 경유하는 攻擊方策은 丁酉年에 備邊司에서 제시되었다.

釜山에 대한 이러한 攻擊方策은 敵의 背後를 지향하는 機動, 다시 말하면 리델하트(B. H. Liddell Hart)의 間接接近(indirect approach) 戰略이 될 것이다. 釜山에 대한 攻擊은 壬辰年의 釜山浦海戰 이상으로 倭軍에게 상당한 心理的 및 物理的 打擊을 줄 뿐만 아니라 對馬島-釜山으로 이어지는 倭軍의 海上交通路를 차단하는 機會를 주고 戰局을 한층 朝鮮軍에게 유리하게 전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V. 丁酉-戊戌年 海戰

1. 概要

明·日 간의 講和交渉이 결렬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命令에 따라 倭軍은 丁酉年(1597年) 1월부터 朝鮮에 兵力을 증파하기 시작하여 그 해 7월에 14萬名으로 第2次 侵攻을 단행하였다. 第2次 侵攻時의 倭軍은 第1次 侵攻時에 서울-釜山 軸線을 따라 主力을 북상시킨 것과는 달리 侵攻主力을 釜山 地域에서 全羅道 地域으로 지향하였다. 이는 그들이 第1次 侵攻의 失敗 原因이 全羅道 地方을 장악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朝鮮의 國王이 義州까지 피난하는 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여 戰勢를 역전시킨 것은 全羅道 地方의 食糧과 人的 資源이 절대적으로 기여한 것이라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倭軍은 第2次 侵攻時에 그들의 目標을 全羅道 地方을 유린하는 데 두었다.

이러한 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倭軍은 奸計를 써서 李舜臣을 제거하고 漆川 梁海戰에서 元均이 지휘하는 朝鮮 水軍을 궤멸시킨 다음, 水陸竝進으로 全羅道에 침입하여 南原과 全州를 점령하고 忠淸道로 북상하였다. 그러나 朝鮮에 다시 파병된 明軍이 그 해 9월 稷山 부근에서 倭軍의 北上을 저지하고, 재기용된 李舜臣이 지휘하는 朝鮮 水軍이 鳴梁海戰에서 승리하여 制海權을 회복함으로써 倭軍의 野慾은 다시 한번 좌절되었다.

京畿, 忠淸道까지 침범했던 倭軍은 9월 20日을 전후하여 全羅道 南海岸으로 퇴각하여 그 해 11~12月 사이에 順天, 泗川, 蔚山 등지에 倭城을 구축하고 守勢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倭軍이 守勢로 전환하게 되자 朝·明 聯合軍은 勝勢를 몰아 戊戌年(1598年) 1월에 蔚山城의 倭軍에 대하여 대대적인 攻擊을 시도하였으나 失敗로 끝나고 말았다. 이리하여 戰況은 한동안 小康狀態로 유지되다가, 그 해 여름부터 朝·明聯合軍이 南海岸 地方의 여러 倭城에 대하여 전면적인 攻勢를 재개하였다.

이러한 攻勢가 진행되는 동안 戊戌年 8月 中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倭軍은 전면적인 撤軍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간파한 李舜臣은 倭軍의 海上退路를 차단하여 철군하는 倭軍을 섬멸하고자 하였다. 李舜臣은 그 해 9月 中旬부터 朝·明聯合軍의 西路軍과 明의 水軍과 함께 順天의 曳橋城에서 철수하려는 고니시(小西行長) 軍을 海·陸上으로 포위 공격하였다.

朝鮮 水軍의 海上封鎖로 말미암아 退路를 차단당한 倭의 고니시軍을 구원하기 위하여 11月 18日 夜間에 南海, 泗川, 固城 등지의 倭船 3百餘 隻이 露梁海峽으로 진격하였다. 이 急報를 받은 李舜臣은 즉시 출전하여 19日 새벽에 露梁 앞 바다에서 倭의 水軍을 요격하였다. 露梁海戰의 勝敗가 판가름날 무렵인 19日 이른 아침에 戰鬥을 진두지휘하던 李舜臣은 敵 鳥銃手의 狙擊을 받아 가슴에 貫通傷을 입고 곧 운명하였다. 李舜臣이 운명한 후에도 그의 遺命에 따라 追擊戰이 계속되었으며, 19日 午前에 露梁海戰은 朝鮮 水軍의 勝利로 끝났다. 이리하여 露梁海戰을 끝으로 모든 戰鬥이 종결되었으며, 11월에 倭軍이 총퇴각함으로써 7年間の 壬辰倭亂은 幕을 내리게 되었다.

2. 李舜臣의 下獄과 漆川梁海戰

講和가 진행되는 동안 倭軍은 약 4萬名⁷¹⁾이 慶尙道 沿海岸 地方에 잔류하고 나머지 15萬名은 日本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다가 明·日 간의 講和가 결렬되자 倭軍 14萬名이 丁酉年(1597年) 1月 初부터 다시 바다를 건너 재침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倭軍은 壬辰年의 過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存在였던 李舜臣을 제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李舜臣의 艦隊를 유인하여 격파하고자 획책하였다.

71) 李炯錫, 앞의 책 下, pp. 1.721~2.

이러한奸計 아래倭將 고니시 유키나가는 그의部下 要時羅를 통하여慶尙右兵使 金應瑞에게「…카토오(加藤清正)가某日에日本으로부터 다시軍士를 거느리고 올 것이니,朝鮮에서는統制使로 하여금海上에서 요격케 하라.」⁷²⁾는 要旨의 密書를 보냈다. 金應瑞는 이 密書의 內容을 都元帥 權慄과 朝廷에 보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密書의 眞僞가 파악되지 않은 채 朝廷에서는 權慄을 통하여 1月 21日에 閑山島의 李舜臣에게 出戰을 명령하였다.⁷³⁾

이러한倭軍의奸計를 간파한 李舜臣은 朝鮮 水軍을 출동시키지 않았다. 그의奸計가 실패하였다고 판단한 고니시는 要時羅를 통하여 金應瑞에게 카토오가 이미 渡海했다는 사실과「朝鮮에서 왜 요격하지 않았는가?」⁷⁴⁾라고 전하였다. 그러나 카토오가 渡海한 것은 權慄이 李舜臣을 만나 出戰을 명령한 1月 21日보다 1週日 이상이나 빠른 1月 13日 경이었던 것이다.⁷⁵⁾

이러한倭軍의奸計와 黨派.싸움의 陰謀가 결합하여 李舜臣에 대한 誣陷으로 이어졌다. 급기야 李舜臣은「朝廷을 속여 임금을 업신 여긴 罪, 賊을 놓아주어 나라를 저버린 罪, 남의 攻勞를 빼앗은 방자한 罪」⁷⁶⁾로 2月 26日에 統制使職에서 파직되어 서울로 압송된 후 하옥되었다. 李舜臣은 獄中에서 많은 고초를 겪은 후 4月 1日에 석방되어 白衣從軍의 길에 올랐다.

한편 倭軍은 그 해 3月 中旬부터 활발한 侵攻作戰을 전개하여 6月 下旬에는 西生浦, 釜山, 加德, 安骨浦 및 熊川에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水軍將 토오토오 다카도라, 와키사카 야스하루 및 가토오 요시아키 등의 水軍 主力艦隊는 熊川을 근거지로 朝鮮 水軍을 격멸할 計劃을 수립하였다. 倭軍은 다시 같은

72) 柳成龍, 앞의 책, 卷二.

73) 『李忠武公全書』 卷之九, 李芬〈行錄(一)〉 참조.

74) 柳成龍, 앞의 책, 卷二.

75) 『宣祖實錄』 30年 1月 21日(壬子) 備邊使의 報告, 1月 23日(甲寅) 金應瑞 및 慶尙道 慰撫使 黃愼의 狀啓 참조.

76) 위의 책, 30年 3月 13日(癸卯).

方法으로 奸計를 꾸미어 「倭軍의 後續部隊가 바다를 건너오니 朝鮮 水軍이 海上에서 요격하면 성공할 것이다.」⁷⁷⁾라는 密書를 金應瑞에 보냈다. 당시 都體察使 李元翼은 權慄과 상의한 후 李舜臣의 後任으로 부임한 三道水軍統制使 元均에게 艦隊의 出動을 명령하였다.

元均은 倭 水軍의 再侵을 알고도 출전하지 않았다는 理由로 李舜臣이 파직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全水軍을 지휘하여 출전해야 할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元均은 지난날 李舜臣이 주장했던 水陸合攻作戰을 주장하며 朝廷과 都元帥 權慄에게 陸軍의 安骨浦 攻擊을 제안하였다.⁷⁸⁾ 그러나 權慄은 元均의 提案을 채택하지 않고 元均을 泗川에 호출하여 질책하고 水軍의 出戰을 독촉하였다.⁷⁹⁾

여기서 朝鮮 水軍의 釜山 攻擊에 대한 備邊司의 方策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備邊司는 水軍이 安骨浦와 加德鎭의 倭軍 때문에 釜山으로 출격할 수 없다면, 水軍이 巨濟島 外海로 나가 玉浦로 진격한 다음 그 곳에서 對馬島와 釜山을 왕래하는 倭船을 감시하고 있다가 몇 個 艦隊로 나누어 교대로 多大浦 方面으로 출격하여 재도래하는 倭軍을 요격해야 한다고 제의하였으며, 元均이 都元帥와 都體察使의 指揮를 따라야 한다고 건의하였다.⁸⁰⁾

出戰을 기피할 수 없게 된 元均은 6月 18日 三道 水軍의 大小 戰船 100餘 隻⁸¹⁾을 이끌고 閑山島를 출항하였다. 그러나 元均은 釜山으로 출격하지도 않았고, 다만 형식적으로 19日 하루 동안 安骨浦와 加德鎭의 倭軍에 대하여 成果없는 攻擊을 한후 귀환하고 말았다.⁸²⁾

元均은 7月 4日 三道 水軍의 戰船 200餘 隻을 지휘하여 閑山島를 출항하였다. 三道 水軍은 漆川梁, 玉浦를 거쳐 7日 多大浦에서 倭船 8隻을 불태우고 絶影島 앞

77) 柳成龍, 앞의 책, 卷之二.

78) 『宣祖實錄』 30年 4月 19日(己卯) 및 6月 11日(庚午) 元均의 狀啓.

79) 위의 책, 30年 6月 28日(丁亥) 權慄의 狀啓.

80) 위의 책, 30年 5月 12日(壬寅) 및 6月 11日(庚午) 備邊司의 狀啓.

81) 위의 책, 30年 6月 28日(丁亥)

82) 위의 책, 30年 6月 29日(戊子) 참조.

바다로 향하였다. 이 때 倭船 1,000餘隻이 對馬島에서 건너오고 있었다. 바람이 점차 심하게 불고 종일토록 항해하여 軍士들이 피로한 상태에서 元均은 무리하게 戰鬥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倭의 水軍은 접근했다 퇴각하며 朝鮮 水軍을 극도로 피로케 하는 攪亂作戰을 전개하였다. 더욱이 元均의 三道 水軍은 심한 풍랑으로 말미암아 陣形이 분산되어 戰勢가 매우 불리하게 되었으며, 일부 戰船은 西生浦까지 밀려가 倭軍에게 격파당했다.

元均은 나머지 戰船을 수습하여 加德島로 퇴각하였는데, 일부 상륙한 朝鮮 水軍은 加德島에서 伏兵으로 대기하고 있던 倭軍의 奇襲을 받아 400名의 軍士를 잃었다. 漆川梁으로 퇴진한 元均은 아무런 對策도 수립하지 못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다. 慶尙右水使 裒楔이 敗戰을 예견하고 元均에게 안전한 海域으로 철수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元均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倭軍의 水軍將 토오토오 및 와키사카 등과 陸軍將 고니시 등이 朝鮮 水軍을 기습할 計劃을 세웠다. 倭의 陸軍 3,000名이 7月 14日 巨濟島 北方으로 이동한 후, 倭 水軍의 主力이 15日 달 밝은 밤을 이용하여 漆川梁에 정박중인 朝鮮 水軍을 기습하였다. 元均은 끝까지 戰鬥을 지휘하지 못하고 陸地로 도주하였다가 倭軍에게 살해되었다. 全羅右水使 李億祺, 忠清水使 崔湖 등 歷戰의 勇將들이 전사하고 朝鮮 水軍은 전멸하였다. 다만 裒楔만이 隸下 戰船을 이끌고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을 뿐이다. 이 漆川梁海戰은 朝鮮 水軍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 한번 참패를 당한 海戰이 되었으며, 朝鮮 水軍의 全滅로 말미암아 制海權은 倭 水軍의 手中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漆川梁海戰에서 朝鮮 水軍이 전멸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要因이 있겠지만,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元均의 부적절한 指揮, 倭軍의 夜襲에 대비하지 못한 警戒態勢의 미흡 그리고 朝鮮 水軍이 자신의 基地로부터 멀리 벗어나 倭軍의 駐屯地 근처에 묘박하였다는 點 등을 꼽을 수 있다. 당시에 元均은 당연히 閑山島 本陣으로 후퇴하여 見乃梁을 봉쇄하고 朝鮮 水軍의 安全을 도모했어야 한다.

한편 漆川梁海戰에서 朝鮮 水軍을 전멸시킨 倭軍은 7月 末부터 全羅道를 공격할 준비를 하였다. 우키다 히데이에(宇喜多秀家)가 지휘하는 左軍은 7月 29日 釜山, 熊川, 安骨浦 등 水軍基地에서 艦船으로 발진하여 8月 初에 固城에 상륙한 후, 泗川과 河東을 거쳐 서진하여 8月 5日 求禮에 이르렀다. 倭의 水軍 主力은 河東에 상륙하여 左軍과 합류하였고, 일부는 蟾津江을 따라 북상하여 求禮에 이르러 水陸으로 南原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다. 한편 모리 히데모도(毛利秀元)가 지휘하는 右軍은 7月 25日 西生浦를 출발하여 居昌을 거쳐 全州를 향해 진격하였다. 左軍은 8月 14~17日에 南原城을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였으며, 이어서 8月 19日에 全州를 무혈 점령하였다. 倭軍은 全羅道를 계속 장악하는 동시에 朝鮮의 海上交通路를 차단하기 위하여 左·右軍의 任務를 나누었다. 右軍은 계속 북상하여 忠淸道를 장악하고, 左軍은 일단 忠淸道 地境에서 남하하여 全羅道를 장악하는 데 주력하면서 朝鮮軍의 海上交通路를 차단하고자 하였다.⁸³⁾

이와 같이 朝鮮 水軍을 궤멸시키고 制海權을 장악한 倭軍은 南海岸 一帶에서 上陸作戰을 실시하면서 수륙병진하여 全羅道를 유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倭의 水軍은 漆川梁海戰에서 朝鮮 水軍을 전멸시켰다고 판단하였음인지 朝鮮 水軍에 대한 追擊戰을 더 이상 전개하지 않았으며, 固城, 河東과 求禮에서 上陸作戰을 실시하고 南原城 攻擊에 가담하였다. 左軍과 합세하여 南原城을 공격 점령한 후에 倭 水軍은 다시 河東으로 남하하여 원래의 水軍 任務에 복귀하였다. 이처럼 倭 水軍은 地上軍과 함께 수륙병진하면서 內陸의 城을 공략하는 데 투입되었다. 이때에도 倭 水軍은 壬辰倭亂 초기와 같이 朝鮮 水軍을 眼中에 두지 않았고 制海權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倭軍의 軍事力 運用이 陸主海從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倭 水軍의 行動은 단신으로 朝鮮 水軍을 재건하기 위하여 강행군을 하고 있던 李舜臣에게 時間을 벌게 해주는 결과가 되었다. 三道水軍統制使로

83)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壬辰倭亂史』(서울: 國防部), p. 229.

재기용된 李舜臣이 倭 水軍의 動態를 최초로 탐색한 것은 8月 26日 於蘭浦에서였으며, 최초 交戰은 8月 28日 於蘭浦에서 발생하였다.

3. 鳴梁海戰

백의종군하고 있던 李舜臣이 漆川梁海戰의 敗報를 접한 것은 7月 18日 草溪에서였다. 크게 놀란 都元帥 權慄이 李舜臣을 찾아와 앞으로의 對策을 논의하였다. 李舜臣은 「내가 직접 沿海岸 地方으로 가서 듣고 본 뒤에 方策을 정하겠다.」⁸⁴⁾고 말하였다. 李舜臣은 그날로 軍官 9名을 대동하고 沿海岸 地方을 향해 출발하였다. 李舜臣은 21日 露梁에 도착하여 巨濟懸令 安衛를 비롯하여 漆川梁海戰에서 겨우 탈출한 將帥와 軍士들로부터 당시의 敗戰 狀況을 들었다.

李舜臣이 三道水軍統制使로 다시 발령을 받은 것은 8月 3日 晋州와 河東 사이에 있는 鼎城에서였다. 李舜臣은 8月 4日에 求禮(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倭軍은 8月 5日에 求禮에 도착하였다.)를 지나 谷城(8月 5日)⁸⁵⁾, 順天(8月 8日), 樂安(8月 9日), 寶城(8月 14~16日)을 거치면서 軍士를 모으고 武器와 軍糧을 수집하였다. 8月 18日에 李舜臣은 戰船이 정박하고 있는 會寧浦에 도착하였다.

패잔한 戰船 12隻을 수습한 李舜臣은 8月 20日 梨津으로 이동한 다음 24日에 於蘭浦에 도착하였다. 8月 26日에 李舜臣은 倭船이 梨津까지 진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8月 28日에 倭 水軍의 先鋒隊 8隻이 습격해 왔으나, 李舜臣이 진두지휘하여 이를 격퇴하였다. 8月 29일(28日)에 다시 碧波津으로 이동한 李舜臣은 敵의 대규모 來襲에 대비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9月 7日 午後와 夜間에 倭 水軍이 來襲하였으나, 李舜臣은 이를 모두 격퇴하였다.

李舜臣은 이처럼 西쪽으로 후퇴하면서 時間을 벌고 倭 水軍의 動態를 살피며 몇 차례 소규모 交戰을 통해서 朝鮮 水軍의 士氣와 戰備態勢를 회복하였던

84) 『亂中日記』 丁酉年 7月 18日字.

85) 『亂中日記』는 丁酉年 8月 初 5日부터 10月 初까지 日記가 중복되어 있다. 아마 干支가 틀려 다시 고쳐 쓴 것으로 판단된다.

것이다. 李舜臣은 天險의 狹水路인 鳴梁海峽에서 倭의 水軍을 유인하여 격파하려는 計劃을 구상하였다. 李舜臣은 9月 15日 潮水를 타고 여러 將帥들을 거느리고 陣을 右水窟 앞 바다로 옮겼다. 「碧波亭 뒤에 鳴梁이 있는데, 수효 적은 水軍으로 鳴梁을 등지고 陣을 칠 수 없기 때문이었다.」⁸⁶⁾ 이에 앞서 朝廷에서는 水軍의 勢力이 미약함을 알고 李舜臣에게 水軍을 폐지하고 陸地에서 싸우라는 命令을 내렸으므로, 李舜臣은 다음과 같은 狀啓를 올렸다.⁸⁷⁾

저 壬辰年으로부터 5, 6年 동안에 敵이 감히 忠淸, 全羅道를 바로 침범하지 못한 것은 우리 水軍이 그 길목을 누르고 있었던 때문입니다. 이제 臣에게 戰船 12隻이 있사온 바 죽을 힘을 다하여 항거해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만일 水軍을 전폐한다는 것은 敵이 한번 다행으로 여기는 일일뿐더러 忠淸道를 거쳐 漢江까지 갈 것이라 그것이 臣이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戰船이 비록 적지만 臣이 죽지 않는 한 敵이 감히 우리를 없수이 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⁸⁸⁾

여기서 우리는 이 狀啓를 통해서 李舜臣이 가졌던 戰略的 思考의 眞髓를 볼 수 있다. 그의 思考를 다시 정리하면, 敵이 그동안 忠淸道와 全羅道를 직접 침범하지 못한 것은 朝鮮 水軍이 要路를 막고 그들의 進路를 차단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朝鮮 水軍이 패하였지만, 남은 12隻의 戰船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항전하면 敵의 進路를 다시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수군을 폐지하면 이는 倭軍이 바랐던 바이며, 倭軍은 아무 저항없이 漢江까지 침범할 수 있다. 따라서 미력하지만 나머지 戰船 12隻을 가지고 싸운다면 敵이 감히 마음대로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李舜臣의 戰略的 思考는 第Ⅱ章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허버트가 「우리 艦隊가 존재하는 한, 敵은 어떠한 攻擊도 감히 기도하

86) 『亂中日記』 丁酉年(Ⅱ) 9月 15日字.

87) 이 狀啓는 8月 15日에 올린 것으로 사료된다. 『亂中日記』 丁酉年 8月 15日字 참조.

88) 『李忠武公全書』 卷之九, 李芬〈行錄(一)〉.

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現存艦隊 戰略의 概念과 일치한다고 보겠다. 이미 李舜臣은 허버트보다 100年 전에 그리고 허버트보다 구체적으로 現存艦隊 戰略을 피력했던 것이다. 또한 艦隊의 存在價値를 이처럼 잘 표현한 例도 거의 없을 것이다.

李舜臣은 鳴梁海峽의 협소한 地形과 빠른 潮流를 이용하여 敵을 격퇴하고자 하였다. 鳴梁海戰이 전개된 9月 16日은 大朝期였으며 潮流도 最強流였다. 이날 아침에 於蘭浦를 출발하여 順潮를 타고 鳴梁海峽에 도착한 倭船은 모두 200餘 隻이었다. 그 가운데 133隻이 鳴梁海峽에 진입하여 朝鮮 水軍을 공격하였다.⁸⁹⁾

李舜臣은 13隻⁹⁰⁾의 戰船을 이끌고 「敵의 戰船이 바다를 덮고 오는지라 여러 將帥들에게 독려하여 좁은 목에다 뱃머리를 잇대어 닻을 내리고 바다 中間을 끊어 敵을 기다렸다.」⁹¹⁾

倭船은 朝鮮 水軍을 포위하면서 공격하였다. 처음에 朝鮮 水軍의 일부 將領들은 겁을 먹고 戰鬪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으나 李舜臣이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고서야 中軍將 金應咸, 巨濟懸令 安衛 등이 죽음을 무릅쓰고 戰鬪에 가담하였다. 때맞추어 潮流도 朝鮮 水軍에게 유리한 南東流가 흐르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李舜臣은 불과 13隻의 戰船으로 133隻의 倭船의 攻擊을 격퇴하고 그 가운데 31隻을 격파 분멸하는 大勝을 거두었다.⁹²⁾

鳴梁海戰이 끝난 후 李舜臣은 於外島(9月 17日 및 10月 8일), 法聖浦(9月 18日 및 10月 3~7日), 蝟島(9月 20日), 古群山島(9月 21~10月 2日) 등

89) 『亂中日記』 丁酉年(1) 9月 16日字.

90) 『宣祖實錄』 30年 11月 10日(丁酉) 三道水軍統制使 李舜臣의 馳啓 및 『李忠武公全書』 卷之十, 李恒福〈全羅左水營大捷碑〉 참조.

91) 『李忠武公全書』 卷之十, 李敏敍〈鳴梁大捷碑〉.

92) 상세한 鳴梁海戰에 관해서는 趙成都, “鳴梁海戰 研究”, 『軍史』 第4號(1982), pp. 36~50 및 金一相, “鳴梁海戰의 戰術的 考察”, 海軍軍史研究室 編, 앞의 책, pp. 195~221 참조.

지를 거쳐 이동 경비를 하면서 10月 29日에 木浦 앞 바다에 있는 寶貨島(古下島)에 도착하여 이곳에 水軍基地를 설치하였다. 寶花島에 陣을 설치한 李舜臣은 兵舍를 짓고 戰船을 건조 보수하였으며, 軍士를 모집하고 軍糧을 확보하며 水軍을 재건하였다.

鳴梁海戰에서 대승한 朝鮮 水軍은 鳴梁海戰 以西의 制海權을 유지하고 倭 水軍의 西海 進出을 저지하였다. 이리하여 京畿, 忠淸道 地方까지 침범했던 倭軍은 9月 20日을 전후하여 또다시 일제히 南海岸 地方으로 퇴각하였다. 癸巳年에 李舜臣이 見乃梁을 봉쇄하여 倭軍의 西進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軍糧이 몹시 결핍하여 南海岸 地方으로 총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뼈아픈 經驗을 가진 倭軍은 癸巳年 봄의 困境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총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鳴梁海戰의 勝利는 또다시 戰勢를 朝鮮에게 유리한 方向으로 전환시켰다. 鳴梁海戰에 앞서 朝廷에 보낸 狀啓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당시 李舜臣의 戰略的 思考는 現存艦隊 戰略의 要諦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戰鬪를 맞이해서 李舜臣은 「兵法에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또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 명도 두렵게 한다.⁹³⁾」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將兵들을 격려하며 국가의 運命을 건 決戰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4. 露梁海戰

寶花島에서 겨울을 지내고 그 다음 해인 戊戌年(1598年) 2月 17日에 李舜臣은 水軍 陣營을 康津 앞 바다에 있는 古今島로 옮겼다. 李舜臣은 順天의 曳橋(倭橋)에 주둔한 고시니 軍을 제압하기 위하여 멀리 떨어진 寶花島로부터 古今島로 水軍基地를 전진시킨 것이다. 古今島는 주변에 莞島를 비롯하여 큰

93) 『亂中日記』 丁酉年(Ⅱ) 9月 15日字.

섬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避難民이 이주하여 농사를 짓고 水軍을 지원하는 데 편리하였다. 또한 古今島는 軍事的으로도 매우 유리한 지형을 가졌다.⁹⁴⁾

李舜臣이 古今島에서 順天 등지의 倭軍을 견제하면서 戰力增強에 힘을 기울이고 있을 때인 戊戌年 7月 16日에 明의 水軍都督 陳璘이 李舜臣과 합세하기 위하여 水軍 5,000名을 거느리고 古今島에 도착하였다.⁹⁵⁾ 한편 陸上에서는 戊戌年 여름부터 明將 麻貴(東路軍), 董一元(中路軍) 및 劉綎(西路軍)이 지휘하는 朝·明 聯合軍이 각각 蔚山, 泗川 및 順天에 주둔한 倭軍을 공격하였다.

7月 18日 倭船 100餘 隻이 鹿島鎭으로 침범했다는 報告를 받은 李舜臣은 鹿島萬戶 宋汝淙에게 戰船 8隻을 주어 析爾島(居金島)에 매복시키고 陳璘도 30隻을 近海에 남겨두었다. 19日 새벽에 倭船 100餘 隻이 鹿島를 출발하였다는 報告를 받은 李舜臣은 즉시 艦隊를 지휘하여 析爾島 近海에서 倭 水軍을 요격하여 50餘 隻을 불태워 버렸다.⁹⁶⁾ 이 析爾島海戰에서 李舜臣은 敵의 精銳 水軍을 격파하고 南海島 以西의 制海權을 장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敵 水軍의 방해없이 曳橋의 고니시 軍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戊戌年 8月 中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倭軍은 무사히 日本으로 철수하기 위하여 蔚山, 釜山, 泗川 및 順天 등지에 집결하였다. 李舜臣은 陳璘과 함께 順天으로 진출한 明將 劉綎과 水陸合同作戰을 전개하여 曳橋에 주둔하고 있는 고니시 軍을 섬멸하기 위하여 9月 15日 古今島를 출항하였으며, 20日에 柚島에 도착한 다음 曳橋의 海上을 완전히 봉쇄하였다. 朝·明 聯合軍은 9月 21日과 22日에 曳橋城에 대하여 海上과 陸上으로부터 兩面攻撃을 가하였으나 陸上의 劉綎이 적극적인 攻撃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海上으로부터 水軍의 攻撃만으로는 큰 成果를 기대할 수 없었다.

94) 『李忠武公全書』 卷之九, 李芬〈行錄(一)〉 및 『宣祖實錄』 31年 3月 18日(癸卯) 참조.

95) 『李忠武公全書』 卷之九, 李芬〈行錄(一)〉. 明 水軍의 정확한 戰船의 隻數는 알려진 것이 없다.

96) 『宣祖修正實錄』 31年 8月 初 1日(甲寅).

朝·明 聯合軍은 10月 2日 아침부터 攻擊을 재개하였다. 朝·明 聯合軍이 陸上戰鬪에서 倭軍의 反擊을 받아 후퇴하였기 때문에 水軍만 고군분투하였다. 다음 날 3日에는 夜間攻擊을 가했는데, 이 날 戰鬪에서 朝鮮 水軍은 밀물을 타고 倭船을 충파하여 이를 불태웠으며 10餘 隻을 나포하였다. 썰물이 되어 朝鮮 水軍은 최후의 攻擊을 가하고 철수하였으나, 明軍의 沙船 19隻과 號船 20餘 隻이 미처 철수하지 못하고 갯벌에 얽히어 倭軍의 攻擊을 받고 모두 불타고 말았다. 10月 6日에 劉綎이 地上軍을 철수시킴에 따라 朝鮮 水軍도 9日에 古今島로 귀항하였다.

11月 9日 이른 아침에 李舜臣은 陳璘과 함께 古今島를 다시 출항하여 11日에 柚島에 도착 결진하였다. 脫出路가 봉쇄된 고니시는 明將 劉綎과 陳璘에게 賂物을 주고 退路를 열어줄 것을 애원하였다. 결국 陳璘은 고니시의 要請을 받아들여 通信船의 탈출을 묵인하였다. 通信船의 脫出을 뒤늦게 안 李舜臣은 고니시 軍의 脫出을 지원하기 위하여 倭軍이 戰船을 총동원하여 背後에 공격해 올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李舜臣은 倭의 救援軍을 먼저 격멸하기 위하여 11月 18日 夜間에 曳橋의 海上封鎖를 해제하고 露梁으로 향하였다. 陳璘은 부득이 李舜臣 艦隊의 뒤를 따랐다.⁹⁷⁾ 이윽고 9日 새벽 2時 頃에 李舜臣과 陳璘이 거느린 聯合艦隊는 南海, 泗川, 固城 方面으로부터 고니시 軍을 구원하기 위하여 鳴梁海峽을 통과하는 倭의 水軍 300餘 隻을 조우하자 일제히 攻擊을 개시하였다. 戰鬪는 치열한 近接戰鬪로 전개되었으며, 倭軍은 觀音浦 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하였다.

치열한 戰鬪가 계속되는 동안 19日 날이 밝기 시작하였다. 觀音浦 쪽으로 밀려난 倭船들은 退路가 막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사적으로 탈출하려고

97) 『宣祖實錄』 32年 2月 初 2日 (壬子).

기도하였다. 이 때에 艦隊의 陣頭에서 追擊戰을 지휘하던 李舜臣의 가슴에 鳥銃彈丸이 관통하였다. 李舜臣은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⁹⁸⁾라는 遺言을 남기고 운명하였다.

敵軍은 물론 我軍도 李舜臣의 戰死를 모르는 가운데 戰鬥가 계속되어 그 날 正午 頃に 왜선 200餘 隻이 격파되었고, 倭軍의 死傷者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倭 水軍 가운데 탈출한 것은 100隻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리하여 壬辰 倭亂 최후의 海戰인 露梁海戰은 朝鮮 水軍의 勝利로 그 幕을 내렸다. 이 露梁海戰의 激戰이 진행되는 동안 高尼西 軍은 曳橋城을 간신히 탈출하였다.

露梁海戰에 앞서 李舜臣은 「이 원수를 제거한다면 지금 죽어도 유한이 없다.」⁹⁹⁾고 기원하였다. 이는 李舜臣이 평소에 간직했던 決死報國의 救國精神을 그대로 나타낸 다짐이었으나, 여기에는 敵을 섬멸하겠다는 결연한 決戰思想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V. 結 論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制海權이란 西洋에서 발전시켜 온 海洋戰略의 핵심적인 概念이며, 國家가 戰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制海權의 確保는 海軍의 중요한 目標가 된다. 이러한 制海權의 觀點에서 壬辰倭亂時에 수행된 海戰과 李舜臣의 戰略思想을 분석 평가하였다. 물론 李舜臣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制海權이란 用語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戰略과 戰術을 살펴볼 때, 그는 制海權의 價値에 정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西洋의 여러 海洋戰略家들 못지 않게 훌륭한 海洋戰略 思想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8) 『李忠武公全書』 卷之九, 李芬 〈行錄(一)〉.

99) 위의 글. 此讐若除 死卽無憾.

李舜臣은 상황에 따라서 決戰, 現存艦隊 및 艦隊封鎖 戰略을 적절히 채택함으로써 南海岸의 制海權을 확보하고 유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制海權을 행사함으로써 國家의 危機를 구원하였다.

閑山島海戰, 釜山浦海戰, 鳴梁海戰 및 露梁海戰은 李舜臣이 추구했던 대표적인 決戰 戰略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壬辰倭亂 초기에 倭 水軍이 無人之境으로 활보하는 상황에서 李舜臣은 第1, 2次 出戰을 통해서 분산된 倭 水軍을 각개 격파하여 制海權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現存艦隊 戰略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癸巳年 이후 丁酉再亂 이전까지의 時期에 李舜臣은 見乃梁을 봉쇄함으로써 巨濟島 以西의 制海權을 유지하였다.

이렇게 확보 유지한 制海權을 바탕으로 朝鮮 水軍은 海上交通路를 위협하고 倭軍의 上陸作戰을 포함한 水陸竝進을 차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반대 경우인 漆川梁海戰 이후 鳴梁海戰까지 倭軍은 水軍의 制海權을 바탕으로 南海岸 곳곳에서 上陸作戰을 수행하면서 水陸竝進하여 全羅道와 忠淸道를 유린했던 것이다. 鳴梁海戰을 통해서 制海權을 회복한 李舜臣은 점진적으로 이를 확장하여 曳橋의 倭軍을 海上으로부터 봉쇄하고 朝·明 聯合軍과 함께 水陸合同作戰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李舜臣이 지휘하는 朝鮮 水軍에게도 限界가 있었는데, 그것은 釜山을 포함한 全海城에 대한 制海權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制海權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制約이 있었다는 點이다 이는 水陸合攻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戰局의 전반적인 狀況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地上軍의 戰勢가 전반적으로 불리했던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라고 보겠다.

지금까지 분석 평가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壬辰倭亂時에 수행된 크고 작은 여러 海戰이 制海權의 確保, 維持 및 行使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意義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制海權의 觀點에서 李舜臣이 보여준 戰略的 思考는 매우 적절하였으며 건전하였다는 結論을 얻게 되었다. 더욱이 李舜臣은 海軍의 存在價

值와 海戰의 重要性에 대하여 救國的인 忠誠心 次元에서 뿐만 아니라 뛰어난 戰略的 洞察力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훌륭한 海洋戰略 思想을 지닌 名將의 後裔라는 矜持를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이렇듯 훌륭한 思想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 反問하게 된다.

參 考 文 獻

單行本：國文 및 日文

-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壬辰倭亂史』, 서울 :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87.
- 國史編纂委員會, 『朝鮮王朝實錄』(影印本), 1957.
- 남천우, 『이순신』, 서울 : 역사와 비평사, 1994.
- 柳成龍, 『懲毖錄』, 南晚星 譯, 서울 : 玄岩社, 1986.
- 民族文化推進會, 『宣祖實錄』, 1987.
- 方相鉉, 『조선초기 수군제도』, 민족문화사, 1991.
- 陸軍士官學校 國防軍事研究室, 『韓國軍制史 : 近世朝鮮後期篇』, 서울 : 陸軍本部, 1977.
- 李舜臣, 『亂中日記』, 李殷相 譯註解, 서울 : 玄岩社, 1973.
- _____, 『壬辰狀草』, 趙成都 譯, 서울 : 淵鏡文化社, 1984.
- 『李忠武公全書』(影印本), 서울 : 成文閣, 1989.
- 李殷相 譯, 『李忠武公全書』, 上·下 서울 : 成文閣, 1989.
- 李炯錫, 『壬辰倭亂史』, 上·下 서울 :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67.
- 張學根, 『朝鮮時代 海洋防衛史』, 서울 : 創美社, 1988.
- 趙成都, 『忠武公 李舜臣』, 서울 : 南榮文化社, 1982.
- 趙仁福, 『李舜臣 戰史研究』, 서울 : 鳴洋社, 1964.
- 崔頌南, 『韓國水軍史 研究』, 서울 : 鳴洋社, 1964.
- _____, 『救國의 名將 李舜臣』, 서울 : 教學社, 1992.

- 海軍軍史研究室, 『壬亂 水軍活動 研究論叢』, 海軍軍史研究室, 1993.
- 海軍士官學校 博物館 『충무공 이순신 연구논총』, 서울 : 연경문화사, 1991.
- 海軍本部, 『韓國海洋史』, 釜山 : 海軍本部, 1954.
- _____, 『水軍名將傳』, 서울 : 海軍本部, 1962.
- _____, 『韓國海戰史』, 下, 서울 : 海軍本部, 1964.
- 海軍 海洋研究所, 『第2回 國際海洋力 심포지움 發表文集』, 海軍海洋研究所, 1981.
- 海南文化院 · 海南郡, 『鳴梁大捷의 再照明』, 광주 : 三和文化社, 1987.
- 佐藤和夫, 『日本水軍史』, 東京 : 原書方, 1985.
- 片野次雄, 『李舜臣ヒ秀吉』, 東京 : 誠文堂 新光社, 1986.

單行本 : 英 文

- Brodie, Bernard, *A Guide to naval strategy*, Westport : Greenwood Press, 1977.
- Colomb, P. H. *Naval Warfare*, Vol. 2. Annapolis : Naval Institute Press, 1990.
- Corbett, Julian S.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Annapolis : Naval Institute Press, 1988.
- Jho Sung-do, *Yi Sun-shin*, Chinhae : Choongomoo-kong Society, 1984.
- Mahan, A. T. *Naval Strategy*, Westport : Greenwood Press, 1975.
- Potter, E. B., and Chester W. Nimitz., eds, *Sea Power*,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60.
- Rosinski, Herbert, *The Development of Naval Thought*, Edited With and Introduction by B. Mitchell Simpson III, Newport, Rhode Island : Naval War College Press, 1977.

- Till Geoffrey. *Maritime Strategy and the Nuclear Age*.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82.
- _____ . *Modern Sea Power*. London : Brassey's, 1987.
- Yi Sun-Sin. *Nanjung Ilgi : War Diary of Admiral Yi Sun-Sin*
- Translated by Ha Tae-hung. Seoul : Yonsei University Press, 1977.

論文：國文 및 英文

- 金在瑾, “朝鮮王朝의 水軍”, 『軍史』, 第1號.
- 徐仁漢, “임진왜란 초기의 패인과 교훈”, 『軍史』, 第12號.
- 李載浩, “임란수군과 이운용 장군”, 『軍史』, 第2號, 1981.
- _____, “李忠武公의 救國精神”, 『海洋戰略』, 第88號, 1995.
- 丁仲煥, “壬辰倭亂時의 釜山地區 戰鬪”, 『軍史』, 第2號.
- 趙成都, “鳴梁海戰 研究”, 『軍史』, 第4號.
- 崔七鎬, “李舜臣將軍의 戰略構想과 作戰結果”, 『軍史』, 第2號, 1981.
- 許善道, 『鎮管官兵編伍冊』, 上·中·下; 『국회도서관보』, 第90, 91, 92號, 1973.
- _____, “壬辰倭亂과 李忠武公의 勝捷”, 『軍史』, 第2號, 1981.
- Eikenbery, Karl W. “The Imjin War”, *Military Review*, Feb, 1988.
- Hagerman, George M. “Lord of the Turtle Boats”, *Proceedings*, Dec, 1967.
- Underwood, Horace H.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의 해전”, 崔在洙 譯, 『海洋戰略』, 第75號, 1992.